

사설

등투 마무리의 학생회 재정비해야

지난했던 등투금부쟁이 지난달 28일 16%인상에서 학교측과 합의함으로써 일단락 지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의 등투금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학생회체계의 진보적인 이원화상과 더불어 목적의식사업 진행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등투금부쟁이는 한마디로 '실패'였다. 이원 등투금부쟁이는 한마디로 '실패'였다. 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당초 많은 학생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수치가 못미친 단지 '2%'라는 수치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실패의 이유는 첫째, 상층 교섭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 단위의 결함하지 못하고 '협상'에만 머물렀던 점, 둘째, 동등적인 각 단위의 과단위까지의 전방적인 등투금의 문제, 셋째 등투를 준비했던 학생회 간부들의 일부 나태한 모습과 준비에 미흡했던 점등을 꼽을 수 있겠다. 허부단위의 등투모범시례를 보면 미술학과와 영어과 등투와 달리 많은 학생이 등투에 참여, 자체적으로 과에서 요구되는 사안들에 대해 예산편성까지 행했었으며 학교교육과는 4학년만해도 20명이 넘게 학생회로 고지시남부를 하는 등 일부 과단위 등투를 볼 때 나름대로 성공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등투를 긍정적 측면에도 본

구하고 실패라고 평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간부들의 문제와, 아울러 총학생회의 '중요'로 통일집중을 시켜내는 지도의 부재가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방학중부터 등투사전준비작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간부들간에 원칙과 의의만을 공유하는데 방학이라는 시간을 보냈으며 또한 현재 총학생은 일상적 사업뿐만 아니라 4.5월 정치부쟁이에 대해서도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것은 28일 '총학생회 출범식'속에서도 사전 준비 미비와 내용상의 부재로 나타났다. 물론 '등투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후 환불액에 대해서 총학생회는 소비적으로 쓰여서는 안될 것, 학생회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학생회 기금형식등을 제안하면서 모든 것은 과토를 통해 결정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이후 환불방법과 환불액 활용방안에 대처하고 있다. 이젠 등투금의 환불액이 더이상 '등투의 맥고'가 되어선 안된다. 총학생회는 나아가는 환불액의 활용방안에 대해 효율적 선전과 결의를 모으는데 주력함으로써 현재 이원 학생회체계를 다시금 정비할 계기를 기필코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제기된 노정권의 퇴진

6공은 어느 선까지 민중을 우롱하려 하는가. 지난해 말부터 6공은 내각제헌, 의원외유, 수서비리 등 '큰 잔치'를 하나씩 무늬터뜨려 오더니 이번에도 역시 '식수오염'이라는 것을 일으키고 만다. 모든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물이 필수라는 사실은 상식이다. 지금까지 6공이 해왔던 정책이나 운영기법이 해왔던 행태를 보면 그들에게 상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져 우리의 상식이 무참히 깨져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이 오염되어 수돗물에서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온 매스컴에서 난리를 치고 정수기가 불타게 팔리는 등 나라가 온통 들쭉거렸을 때가 바로 지난 여름이었다. 그때 노대통령은 "식수만큼은 안전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분명히 발언하였다. '식수만큼은'이라는 표현을 썼으니 다른것은 모르더라도 식수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일내에 가장 중요한 시안으로서 정부시책을 펴나갈 것이라 민중은 생각했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는 부인인가. 눈앞의 돈개산에 상식마저 팽개치 두산은 '비롯한' 제벌기업에, 무려 30여분이나 방류되도록

방치한 당국이 식수 폐쇄조치라는 작동을 만들어 낸 것이다. 사건의무의 모습도 보면 주벌인 두산그룹은 계속되는 불매운동에도 시큰둥한 모습을 보였지만 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이동중이고 정부당국도 즉각 총리를 비롯한 환경부장관, 대구시장 등 책임자의 문책없이 7명의 하위급 공무원만 '적시'용으로 구속시켰을 뿐이다. 대구-경북지역민중의 식수로 인한 건강과피를 사과문과 하급공무원 몇명이 책임질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단 한사람의 건강이라도 국가의 책임을 지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인 것이다. 일이 일어난 이후 환경보전에 대한 근본 대책이 없다. 정부당국의 책임자 문책이 없다는 것에서 또다시 우리는 진부한 정정우치의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결국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인가는 당연하다. 또한 노대통령이 작년 여름에 했던 말을 상기해볼 때 책임은 명확하게 그가 지야한다. 그책의 의미는 사죄와 더불어 빠른 시일내로 환경오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고히 마련한 후에 사퇴할 것을 아울러 우리는 요구한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노대통령에게 상식에 대한 또하나의 '부모한 믿음'이 아닐지 중점으로 바란다.

시사 논단



박영근 <중앙대학교·불문과>

이름바 6.29선언이 발표된 뒤 교수들은 학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대학운영을 민주화하기 위해 교수협의회를 구성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실시된 총학생회 직선과정에서도 교수들은 한결같이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 교수들은 그동안 재단이 저지른 부정비리와 즉결체제를 야기한 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하는 등 대학민주화에 대한 절연한 의지를 내보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학생·직원이 함께 대학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총·학생·직원 선출문제, 교수인용, 등록금인상률, 교과과정의 개선, 대학구성원에 대한 복지문제 등을 민주적인 절차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했다. 그러나 이런 바람직한 현상은 겨우 89년 공인정규 직전까지만 지속되었을 뿐이다. 공인정규직이 시작되자 교수사회는 눈에 띄게 정경화되고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정경되어 방향 감각을 잃었다. 재단측은 이같은 흐름을 재빨리 간파하고 거기에 발발했다. 대학과 사회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교수들을 탄압하고 추방을 채우려는 정경화 재단의 의의가 보이는 사립학교법은 동등권리 교육제를 철폐하고 있다. 많은 재단은 대학을 사기업으로 여기고 즉결체제를 구축하여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교직원들의 낙하산식 인사로 감시망을 만들어서 대학구성원들의 불신을 증폭시켜 왔던 교육계의 '검은 손'이다. 대학이 이러한 열악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에 늘어난 의식을 표출해오면서 대학

교육수요 확대에 비해 정부·재민의 부담은 얼마

— 교육재정의 문제를 분석한다.

의 파격적 운영에 민주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구체적 현실을 총체적으로 파악 대응하는 순발력을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육제도에 의해 비판의식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침묵의 문화'에 유배되고, 따라서 그들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단순한 일과상의 소비자로 자임하는 자기희면에 걸려왔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와 같은 강요된 침묵의 문화와 자기희면의 파괴가 바로 학생권에 대해 올바른 인식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혁신'을 추구함과 동시에 그것을 요구하는 등 대학민주화에 대한 절연한 의지를 내보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학생·직원이 함께 대학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총·학생·직원 선출문제, 교수인용, 등록금인상률, 교과과정의 개선, 대학구성원에 대한 복지문제 등을 민주적인 절차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했다. 그러나 이런 바람직한 현상은 겨우 89년 공인정규 직전까지만 지속되었을 뿐이다. 공인정규직이 시작되자 교수사회는 눈에 띄게 정경화되고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정경되어 방향 감각을 잃었다. 재단측은 이같은 흐름을 재빨리 간파하고 거기에 발발했다. 대학과 사회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교수들을 탄압하고 추방을 채우려는 정경화 재단의 의의가 보이는 사립학교법은 동등권리 교육제를 철폐하고 있다. 많은 재단은 대학을 사기업으로 여기고 즉결체제를 구축하여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교직원들의 낙하산식 인사로 감시망을 만들어서 대학구성원들의 불신을 증폭시켜 왔던 교육계의 '검은 손'이다. 대학이 이러한 열악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에 늘어난 의식을 표출해오면서 대학

은 바로 이와같은 교육정책과 그에 걸맞는 교육투자자의 부재현상에서 표출되는 위기적 국면으로 규정될 수 있다' (우리교육, 1990년 11월호) 특히 대학생의 76%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의 재정수입을 중심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사립대의 재정수입은 등록금, 재단 전입금, 국가보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주요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with 6 columns: Year, Total Income (100 million won), Tuition, Government Support, Foundation Income, Donation, Other. Data for 1986, 1987, 1988.

*병원 전입금 제외

이렇게 엄청난 등록금의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의 비율은 사립대학이 월등히 높음으로써 교원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학생들은 많은 등록금을 납부하지만 교육의 질, 교육환경, 복지시설에 대한 혜택은 오히려 반비례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재단의 학교에 대한 부자의 열악한 지원 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등

(주요 국가별 사립대학 교육비 수입내역(%))

Table with 7 columns: Country, Government Support, Tuition, School Income, Donation, Other, Total. Data for USA, France, UK, USA, Japan, Korea.

(대학교육 재정의 국제 비교 연구: 대학교육협의회, 1988)

등록금이 설득력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그에 걸맞은 교육수요 확대에 비해 정부·재민의 부담은 얼마

동문/칼럼

출판인보다는 소설가라는 단어가 내 이름 밑에 더 높은 지위를 바라고 있다. 출판자에 담담하고 있는 것은 땀 문제 해결하기 위한 호구지책일 뿐이고 소설창작은 내 자신의 삶을 배가하는 즉, 한 인간(人間)으로서 자기 몫의 존재를 확인케 하는 무게와 빛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를 소설가로 키워준 동대(東大)는 이삭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 향긋한 웃음을 선사했다. 문우(文友)들의 순수한 열정이 물살을 잃는 연두빛 나뭇잎처럼 가득하여 나를 분발케 하였고, 극단과 편견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일련된 마음의 지혜를 깨닫게 한 불교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 번민하고 싶지 않았던 시절을 함께 나누어준 장이나 남산의 평을음소리 들려오던 강의실이 나의 도반(道伴)이 되어주기도 했었다.

그런데 학교 밖의 세상은 냉혹했다. 내 몫의 가치를 따져보는 창작행위에 앞서 현실 문제가 당장의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직업을 갖게 되었고, 몇몇 직장을 옮겨다니다가 마침내는 창작생활과 사촌쯤 되는 출판자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다. 출판의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된 지도 벌써 10여년이 흘렀다. 이제는 출판자에 뜻을 둔 후배들에게 자리를 부탁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직업은 자기 몫을 확인케 하는 무게와 빛깔

조 인건이 연상되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때문에 자기 개발이 가능하고 더불어 먹고사는 문제가 웬만큼 해결될 수 있는 곳이면 그런 터가 최선의 직장이 아닐까 싶다. 몇달 전이다. 사보 편집을 하는 기자가 찾아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자기 직업에 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과는 좀 이질적

인 직종에 있는 것이다. 토목 공학을 전공했는데 지금은 활자를 다루는 사보 편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다가 제 전공과 거리가 먼 사보 편집을 하게 되어 취재기사도 써야 하고, 그러자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었다. 문제는 스스로 그런 의지가 부족하거나 회피하는 태도에 있었다. 다행히 그는 사진에 관심이

“사보에 한두 페이지씩 연재를 하면 되겠네요. 제 전공도 하려 되겠네요.” 그는 금세 행복할 사람이라도 된 양 얼굴을 활짝 펼친 채 이런 약속을 하고 돌아갔다. “신생년 몇년 후에야 꼭 물의 흐름을 이용한 문화제에 관한 책을 헌내겠습니다.” 그렇다. 이제는 단순회 의 석수 때문에 직장을 선택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자기 완성을 할 수 있는냐 없느냐에 따라 자신의 일터가 선택되어져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무척 다들스럽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직업 때문에 교

정찬주 <소설가·국문과80졸업>

Cartoon by Dongman. A character is sitting at a desk with a computer, looking frustrated. Text: '자/자! 이런데 오면 못써요.' '학부모한테 전화가 왔나니까'

목역골

- 회원단원 모집
안녕하세요.
멋진 대학생활을 응원단에서 만끽해보고 싶지 않으시렵니까
남반! 패기! 사랑! 이 모든 3박자를 모두 갖춘 응원단에선 1부5원 동아인을 모집합니다.
두드려주세요. 저의 응원단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Action 남·여 ○○명
●Vocal 남·여 ○명
Singer, Guitar, Bass, Keyboard, Drum
●기간: 4월12일까지
●장소: 학생회관 6층 응원단실

- 아학교사를 기다립니다
진정으로 더불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길을 갈 분을 찾습니다.
·대상: 90·89학번
·따로: 967-0875(늦은 7시~10시)
-이바둑 아간학교

- 무역학과 91학번에게
내일 모레가는 파 캣 M T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 못하게 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부디 잘 기다려서 대학생활의 좋은 추억으로 남기 바랍니다.
-민수가

- 국문과분과회 회원모집
문학을 통해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예제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창작하면서 등고공략할 새나기를 배우고드립니다.
·대상: 91학번(여타학번도 열의왕성하면됨)
·기간: 오는 4월12일까지
·문의: 국문과 학생회방(원호관 4층)

- 알립니다
이러한 반발과 억압에도 굴하지 않는 민중민주 동아리의 가장 모범적인 선두주자 '동국 영상사진 예술연구회'에서 드디어 그 부시부시(?)한 M.T를 떠나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격려적인 참여로 멋진자리 마련합니다.
지금 당장 올라오세요.
-배태적(?)부신신사

- 알립니다
부산고·경남고 M.T건으로 임시동문회가 있습니다.
적극적 참여 바랍니다.
·매: 4월3일 수요일
·시간: 늦은 5시
·곳: 학생회관 휴게실
-부고를 미워(?)하는 한학우

동막! 광장

은방골

자주성 기반으로 대중적 토대 강화 역점

과 운영위 정착, 학회 활성화 통한 분임토의 중요

이 글에서는 지난 30일 서총련 대의원총회서 정립된 '조직노선'부분을 요약한다

식민지 변혁의 과제를 부여 받은 청년학도에게 조직은 대중운동요강의 학교이자 주체단위의 장이다. 더욱더 노골화되는 미국의 침략정책에 맞서, 91-92년 겨울을 준비하는 학생운동은 어떻게 학우들의 다변화되는 이해와 지향을 모아 다종다기한 대중조직을 위어내고 이를 집중된 힘으로 만들어 낼 상충불일전선조직을 얼마나 실속있게 만들어내는데 그 승패여부가 달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각에도 불구하고 지난 80년대를 평가해보면 여전히 투쟁방향·방도에 대한 고민에만 치중되고, 그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심화되지 못하거나 간과되어 왔다.

여기서 주체의 개인적고민과 생활권집행이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상 힘있는 투쟁은 기대할 수 없으며 학우들에게 기반한 다양한 대중적 소모임을 활성화하지 않는 이상 거대한 대중투쟁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의식이 기초에서 92-93년의 준비가 토대구축의 방도를 내용과 아울러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본다.

우선 과의 자주화를 확대·강화해야 한다. 중추부대강화의 핵심 기초 단위의 자주화를 확대·강화시키는 것은 가장 밀접하게 일상적으로 연관되어있는 학우 대중들에게 분투의 뿌리내리는

것이며 이에 기초로 해서만 단대·총학생회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과 운영위를 정착시켜야 한다. 과 운영위는 과학생회의 단결과 조목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이다. 과운영위활성화를 통해 대표성을 공고히 하고, 대중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민족주의의식을 교양하는 학회를 튼튼히 세우고 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학회를 단순한 학술부연 연구모임이나 소수 몇몇사람들의 모임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과학생회의 강화에 부수하는 모든 모임들을 학생회의 중심에 묶어 세워야 한다. 이리할때만이 과학생회의 일관된 질서와 체계는 물론 학우들의 공신력과 학생회의 포용력을 보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가지 과제를 기본으로 다기다양한 영역에서 분임토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강의실, 잔디밭, 휴게실에서 주어진 조건과 정서에 맞게 학우들의 다양한 의사와 지향을 자발적으로 발표케하여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식적으로 과, 학단, 학년토론회를 일상적으로 강화시켜 총회투쟁으로서의 지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과학생회의 대중적토대를 굳건히 쌓는 올바른 과정인 것이다. 그리고 과의 모범을 단대로,

3~4개 단대 자주화를 확보하자. 과단위 모범을 단대로 집중하는 문제는 토대강화에 있어 핵심적 내용이다. 단대자주화에 있어 크게 과의 자주적호를 기반으로 단대 지도력을 고양시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과 과사업의 자주화를 자신의 사업으로 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자기 단과대의 운동수준과 학우대중의 이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자신의 노선을 마련함으로써 단대 학생회의 자립, 자율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단대학생회는 총학생회의와 통일적 사업에 대해 단거한 굳건한 신뢰와 의리를 기초로 정치·사상적 요구가 모여있는 조직이기에 총학생회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고 자기 사업 수행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위의 과제를 실현하기위한 방법적지도의 측면으로 첫째 '자주적 학생회'를 전면에 내걸고 자기사업을 다그쳐야 한다. 자주적 학생회를 굳건히 세우는 방도로써 학년학생회를 건설, 강화하는 것이다. 같은 과, 같은 학년이라는 통일단결의 기초적 동질성에서 뿐만 아니라 학단, 학년 토론회, 취미, 학술소모임 구성등 다양한 형식과 방도를 통해 학년 학생회를 세우고 학우 대중들을 학생회의 중심에 묶어 세울 수 있다.

또하나 운영위원회, 확대간부회의, 전학대회등 대의체제

를 튼튼히 다지고 굳건히 확보하는 문제이다. 학우대중들의 아래로부터의 광범한 이해와 요구의 주요봉로인 대의체제확보와 강화의 문제 학생회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율성을 극대화시켜 통일집중과 학우대중의 자주적 창조를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우대중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학생회간부들의 자질을 드높이고 지도력을 확보하는 간부교양의 문제이다. 이는 학생회 간부가 학우대중의 삶과 정서에서부터 중심적요구와 고민을 함께하고 이에 근거한 굳건한 신뢰와 의리를 기초로 정치·사상적 요구로 상승 발전시켜 내야하는 요구로 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몇가지 과제를 통해 과-단대중앙으로 모범과 혁신을 이어지고 지구단위-서총련의 강화로 귀결되어간다. 이를 통해 서총련은 연합체의 질과 내용을 더욱 풍부하고 전진하는 전진력으로 자기발전전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이다.

또하나 일상조직사업강화와 부문계열운동 정착을 골간체제로 받아들이야 한다. 올해 상반기 학생회 사업과정에서 많은 단위가 "총학생회가 기층단위와 괴리되어 지도력과 지도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단계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고민을 호소하고 있는 지구단위, 과단위, 학년단위의 자주적 흐름과 발전정도를 상충에

서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지도의 부재를 의미한다. 여기로부터 일정한 계도에 올라있는 학생회 일상사업의 강화에 있어 지도역량구축의 과제가 제기된다. 지도역량 축적에 있어서 핵심은 아랫단위의 자주적 흐름을 옹호하고 내실있게 도우며 모든 사업의 진행을 측면에서 구체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간부들을 양적으로 준비, 그들을 굳건히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중추부대강화에 있어 중요한 또하나의 과제는 부문계열운동의 활성화이다. 학생이라는 일반적인 정치외에 전공·문화등의 또 다른 처지에 근거하는 학우대중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부문·계열모임은 학생운동의 대중화와 통일단결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다양한 이해에 근거하여 폭넓은 사업과 투쟁의 영역은 학생회를 종적·횡적으로 연결·강화하였고 계급·계층별 부문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구국운동의 총체적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한 반면에 아직도 고립, 분산을 면치 못하고 발전의 수준도 그리 높지 않다. 포괄적으로 부문계열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획적토대를 확보하고 일상 조직사업의 강화로 전체공간을 튼튼히 세워내고 서총련으로 그 힘을 집약적 충서켜 내며 서총련은 주동적으로 탄력적으로 받아들이야 한다.

(사회부)

읽을 만한 책들

■제주항쟁 남한단독정부선거지시반대로 일어난 제주도민들의 항쟁은 그동안 '4·3 사건'으로 조심스럽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 이번엔 제주4·3연구소에서 펴낸 '제주항쟁'에서는 남로당과 1947년 3·1 위항쟁과 제주민중항쟁 현단계는 점을 다루었다. (실천문학사/5천5백원)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인민노동운동의 범정부쟁기과를 중심으로 한 이 책은 당면투쟁에서는 정치적자유와 조직결성의 자유를 위해 힘을 합쳐야하며, 궁극적으로는 남한노동자계급이 주도하게 될 민중혁명과 사회주의 승리와 발전에 대한 확신을 말해준다. (소나무/3천5백원)

■한국현대사1·2 전4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제1권에서 해방직후의 객관적구조와 상황, 분단이 현실화되기 이전의 권위운동·통일운동·노동농민운동과 분단이 현실화되는 시점부터 한국전쟁이전까지 민중운동의 전개과정을 다루고, 제2권에서는 1950년대를 올바르게 조망하기 위하여 한국전쟁과 전후 한국사회의 개편, 1950년대말의 변혁운동과 4월민중항쟁을 다루고 북한과 통일문제를 다룬다. (풀빛/5천원)

■분단과 통일의 역사 한반도분단에 관계된 각 당사자, 해당국가의 주장과 변론 그리고 내면의 숨겨진 정치권력투쟁을 공식문서에 의해서 확인하고 분단의 역사, 군사화의 역사 및 현황, 각종통일방안, 민중적통일방안으로 서술되어져있다. (통일문제연구소/3천8백원)

■레닌의 당조직 사상과 현대 현대자주주의의 과학기술혁명과 노동자계급구성변화라는 상황속에서 정당의 계급적 성격문제와 당이 현대에 있어서 담당해야할 역할, 새로운 유형의 당이론의 타당성, 민주주의의 문제등

을 다루었다. (새길/3천2백원)

■하나됨을 위하여 고생 끝에 들어온 신입생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패배주의·개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하는 인생관의 문제, 사회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등을 통해 의제와 독재가 비호하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서 노동자·농민 등 기층노동층에서 이땅의 대학인들로서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던져준다. (이제이제음/새남/4천8백원)

■바다로부터 김이별 푸르고 따뜻한 바닷가의 한 마을에 이노날 갑자기 압송해온 공해와 오염의 충격과 이에 맞서는 젊은이들의 사랑과 고향, 싸움등을 절제된 문체로 그려내고있다. (이제이제음/풀빛/4천원)

■사랑의 조건 1980년 5월초에서 1990년대 초까지의 역사적인 시간, 그속에서 자라난 변혁적 두 남녀의 삶과 사랑의 변주법을 그린다. (안재성지음/한길사/4천5백원)

■한라산의 노을 한라산을 통해서 제주도민이 부장봉기할 수밖에없었던 타당성을 전3권을 통해 말해준다. (한림지음/한길사/3천8백원)

■파란노트 세계노동자계급의 해방투쟁에서 마르크스주의 가장 탁월한 이론가인 레닌의 피선생활을 다루었다. (엘라뉴엘 마자케비치지음/문신규 옮김, 김남주해설/일빛)

■청강지대 90년대 노동문학의 새 이정표를 제시해준 이 소설은 도시빈민, 부랑층, 노동자, 학생들 각계각층 민중이 역사의 대장전에서 어떻게 만나 현실변혁운동을 주체적으로 추진해나가는가를 형상화했다. (정화진지음/풀빛/4천원)

■홍도화 고도산업화를 지향하는 정치적 사회적 지배이데올로기아래서 어쩔 수 없이 가진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공장노동자의 삶과희망을 그린다. (이수광지음/한겨레/3천8백원)

모든 사업은 다수의 참여로부터

서총련 모범으로 꼽힌 국교과 총회투쟁

서총련 모범으로 꼽힌 국교과 총회투쟁 사례를 살펴 본다.

사업의 동기 1학기때 개강초 과총회를 가졌는데, 그때 당시 간부들의 과총회 준비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재미있는 총회, 모두가 참여하는 총회, 결의를 중심으로 짧고 빠른 총회"를 갖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총회의 참여인원은 30~40명 정도였다.

이후 이 총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미리부터 문제의식을 간부들이 공유하게 되었다. 또 과회장 선거공약중 하나였던 과 총회를 총회와 함께 하기도 하였다.

사업의 진행과정 이부 농활은 24명 정도가 참

여하였는데, 이때 과회장은 160명 모두가 준비하는 총회와 축전을 치를 것을 권의하고 먼저 농활에 온 24명의 학우들로 부터 결의를 내왔다. 일부 간부들로부터 '현실적으로 160명 모두가 참여하는 축전 준비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결의로 사업을 진행시킨 결과 방학 끝날 때는 축전 준비에 80명이 참가하게 되었다.

축전 10일전부터 과축전을 위한 집중준비기간으로 설정하였었다. 또 2·3일전부터는 각학년별로 축전준비날 있을 총회준비를 위한 분임토의를 진행하였다. 안건은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추측전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과양 환경치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스무개 학습담사에 대하여 있었다.

모범이 되는 점 첫째, 총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었다. '모두가 참여하는 총회, 구체적인 결의를 내오는 총회, 분임토의에 기초한 총회, 기타 재미있는 행사와 결합된 축제의 장으로서의 총회'를 이루겠다는 관점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를 실현하였던 것이다.

둘째, 축전의 준비과정에서 160명 모두가 자신이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 축제나 총회 대동제가 전문역량이 준비되고 나머지는 구성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에 반해 스폰서, 파산정소 및 미화, 노래공연, 연극공연 등등의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셋째, 기간의 학생회 사업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있었으며, 학우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체육대회에서 기능중심, 남학우 중심의 진행을 극복하기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을 고민하고 실행했던 것이다. 이는 작은 일이지만 학우들을 분리시키고 소외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네째, 풍크게 사업을 하였다. 졸업한 과 선배님들을 모셔서 함께한 집, 스콘서를 포함하여 총소요자금이 1백만원이었던 집에서 사업의 폭을 소극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방학때 전원이 준비과정에서 참여하게 하였다는 목표설정. 간부들이 사업실정을 아주 풍크게 하였다는 것이다. 소모임의 활성화, 학년모임의 활성화, 분임토의 총회의 활성화, 모두가 주인공이 참여하는 사업, 계 영역에서 모범이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출발은 간부의 몇가지의 단편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였다. "재미있는 총회를 만들어겠다" "준비과정에서부터 모두가 참여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문제의식과 그것이 철저한 집행으로부터 모든 모범이 실현될 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 이는 간부의 철저한 헌신이 모든 사업의 출발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부)

제9회 학생논문 현상모집

본사에서 본지 창간 41주년 및 4·19 31주년 기념 '제9회 학생논문'작품을 모집합니다. 정문적필과 독재에 피로써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한발자욱 전진시킨 숭고한 뜻을 새롭게 조망하고 되살리기위한 이 광장에 여러분의 날카로운 비판과 지성을 기대합니다.

- ◇주제 1.4-19의 비판적 재조명
- 2.조선시대 호국독교를 통해본 실천불교
- 3.남북한 통일방안 고찰
- 4.UR협상과 재국주의
- 5.사립학교법과 대학의 위상
- 6.페미니즘 이후의 세계지배질서 재편

동대신문사

SAM YANG GROUP

깨끗한 환경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집요한 질문으로 가끔 교수님을 당황하게 한다 그래서 건방지다는 소릴 들을때가 있다

적극적인 삶, 몰두하는 젊음 - **삼양그룹은 이런 젊은이들을 사랑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학구정신... 이것이 바로 삼양이 젊음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1924년 이땅에 삼양의 씨앗을 뿌린 이후 섬유, 식품, 사료, 기계, 화학부문을 거느린 삼양의 개척정신은 이제 새롭게 고분자, 의료용소재 및 제약, 발효공업 등 첨단산업에 도전합니다. 미래를 이끌 뜨거운 가슴과 진지한 눈빛의 젊은이들처럼 삼양그룹은 진취적 기상으로 보나온 내일,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삼양

- 주식회사삼양사(化纖, 纖維, 飼料, 水産, 精製化學)
- 삼양중기주식회사
- 삼일도당주식회사
-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 삼양회생주식회사
- 신원제분주식회사
- 다원산업(주)이비
- 삼양종합연구소
- 양양원
- 삼양대학회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핵안전 협정'

한반도 비핵화, 핵시설 동시사찰로 부터

핵 안전협정 미체결국, 전세계 37개국이나 돼

최 진 태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연구원)

최근들어 북한의 '핵안전 협정 가입'을 둘러싼 미-북한사이의 대립이 날이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미국은 이른바 '핵확산의 방지' 등을 이유로 북한의 핵안전협정 가입 압력에 한층 힘을 넣고 있고, 북한은 "민족의 생존권, 국가의 안전, 자주적 권리를 유린당하면서까지 협정에 조인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던 조-미-조-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이 핵안전 협정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핵안전협정

핵안전 협정 가입공방이 본격화된 것은 89년 6월 솔로몬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가 이를 미-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5가지 선결조건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거론하면서 부터다.

북한에 협정가입을 요구하는 미국의 표면적인 입장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핵확산 금지조약(NPT) 가입은 가입 6개월 안에 자국안의 모든 핵관련 시설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감시를 받는 핵안전협정을 받아들여야 하고 24개월 안에 정식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85년 12월 이조약에 가입했음에도 정식협정을 맺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최근들어 북한의 핵 기술능력과 핵무기 제조 능력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동북아의 군사적인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북한도 이에 지지 않는다. 북한은 "영변에 원자로를 세우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핵무기 개발로 의심하는 것은 서방의 언론이 퍼뜨린 날조된 소문이며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북한은 미국의 공세에 맞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철수하면 핵시설을 받아들이겠다"고 반격한다.

이렇게 볼 때 최근의 핵안전협정 가입공방은 주한미군 보유 핵무기 및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핵시설을 둘러싼 공방은 IAEA라

조-미-조-일 관계 개선과 긴밀히 연동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레 떠오르는 의문이 있다. 왜 핵 안전 협정에서 이공방이 본격화됐는가 하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들어 북한의 핵시설 동시사찰로 부터 한반도 비핵화, 핵안전협정 미체결국, 전세계 37개국이나 돼

미국- 핵확산 빌미로 군사적 우위의도

북한- 주한미군보유 핵무기 철수필요

주지하듯이 이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최근 급속히 추진된 교차점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다시피 최근의 탈냉전의 조류에 힘입어 한반도 주변의 4대강국 가운데 이미 소련과 일본은 남북한 모두에 대해 외교채널을 갖게 됐다. 중국 역시 남한이 연내 수교를 목표로 총력외교를 펴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의 무역사수 교환 수준의 관계를 신중하게 나날 발전시켜 나갈 것이 분명하다.

비록말해 이같은 조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불안하게 될 가능성을 말한다. 다른 강대국들이 남북한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반해, 남한 한 쪽밖에 채널을 갖지 못하기 때

'힘의 우위정책' 실현

이제 협정가입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미국의 진짜 속셈은 보다 분명히 나타난다. 미국은 협정가입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 자체를 원칙적으로 봉쇄한 채 남한 전역에 배치돼 있는 1천여기 인력의 핵무기를 그대로 남겨두고 북한과 관계개선을 한다는 '핑도먹고 알도 먹는' 구상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다.



최근들어 북한의 핵시설 동시사찰로 부터 한반도 비핵화, 핵안전협정 미체결국, 전세계 37개국이나 돼

미국- 핵확산 빌미로 군사적 우위의도

북한- 주한미군보유 핵무기 철수필요

교원칙에 힘입어, 협상에 적극 나선 것. 급변초 연평포충리가 아세아 각국을 순방하며 이들과의 관계를 강화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경제적으로도 북한은 미국과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사실로 보인다. 최근 소련과 동구권의 위기의 결과 그간 북한의 주변 교역상 대국이었던 사회주의권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은 새로운 교역선으로 서방과의 무역을 늘릴 필요성을 안게 됐다. 여기서 코콤(COCCOM)규제층을 통해 북한과 자본주의 나라사이의 교역을 규제하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북한의 '핵 개발 여부'도 불투명

미국은 영변의 원자력 시설이 핵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사실여부도 현재로서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최근 미 당국자들도 북한의 핵개발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언급하고 있다. 작년 4월 미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월코프게 국무차관이 "북한이 핵무기 개



최근들어 북한의 핵시설 동시사찰로 부터 한반도 비핵화, 핵안전협정 미체결국, 전세계 37개국이나 돼

미국- 핵확산 빌미로 군사적 우위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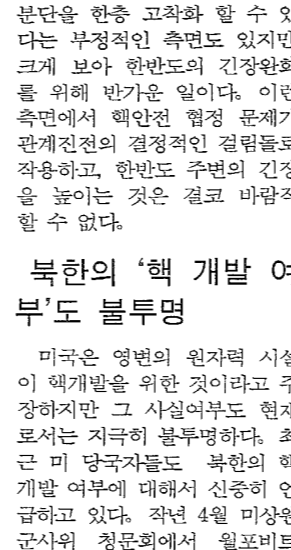
북한- 주한미군보유 핵무기 철수필요

발이 임박한 것은 아니며 개발까지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이를 전후해 미소상회담 뒤 미국방성 국제안보담당 헨리 로한 차관보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속력이 빠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그 좋은 예다. 또 영국의 국제전략연구기구(IISS) 부소장인 케네스 헌트 박사도 "북한이 핵 재처리 시설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없으며 중국과 소련이 북한의 핵보유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견해를 말한 바 있다.

IAEA의 사찰을 받지 않으려는 것을 골라 핵무기 제조로 연결하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NPT조약 가입 국가 가운데 베트남, 콜롬비아 등 협정

미체결국가 37개국이나 되지만 이들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의의는 받은 것은 이들 잘 말해준다.

사실 IAEA는 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했다는 긍정성과 아울러 강대국 중심의 기구라는 한계도 지닌다. IAEA는 핵기술이 확산되어 새로운 핵병기국이 등장하면서 미국 등 강대국이 핵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데 이 해를 같이해 만든 수직적 기구



최근들어 북한의 핵시설 동시사찰로 부터 한반도 비핵화, 핵안전협정 미체결국, 전세계 37개국이나 돼

미국- 핵확산 빌미로 군사적 우위의도

북한- 주한미군보유 핵무기 철수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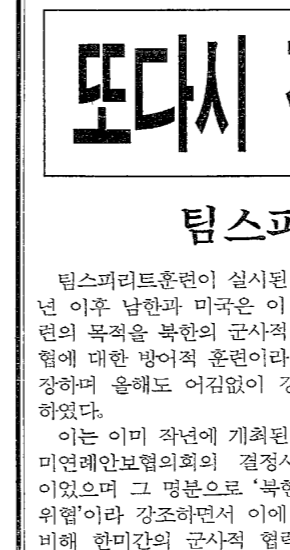
이긴 때문이다. 이같은 점들에서 우리는 미국이 핵안전협정 가입을 무기삼아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고 북한을 고립화하기 위한 공세를 펴고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

다우 집실히 요청되는 '비핵지대화' 미-이라크 전쟁이후 미국은 급속히 세를 넓히고 지배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군사주의 보수주의를 감안할 때, 북한에 대한 핵 사찰 압력은 앞으로 한층 그 강도를 높일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지난 3월6일 솔로몬 국무부차관보가 "충분한 반대 급부없는 상황에서 비핵지대화 방안은 현재의 안보체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제안한 비핵지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은 단지 그 신호탄에 불과하다.

여기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해진다.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동시사찰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완성돼야 한다는 대안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이같은 주장은 우리 진보적인 민주세력만의 것은 아니다.

이 북소리는 관변과 보수적인 진영사이에서도 공감을 넓히고 있다. 지난 3월11일 전적 합참의장-국방장관-교수 등으로 구성된 한-미 관계위원회(공동의장 스킨리프, 김경원)가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가 철수해도 한국의 안보에는 지장이 없다"고 회견문회에서 솔라크 의원이 "남한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가 북한의 핵개발 근거가 되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방안의 핵기초를 높일 것"에 대한 진보적인 안전장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그 좋은 예다.



최근들어 북한의 핵시설 동시사찰로 부터 한반도 비핵화, 핵안전협정 미체결국, 전세계 37개국이나 돼

미국- 핵확산 빌미로 군사적 우위의도

북한- 주한미군보유 핵무기 철수필요

이것이 바로 '핵안전협정 공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작년 여름에 나온 디펜스 모니터지의 다음 보도가 잘 요약하고 있다. "남한에서 주한미군 보유 핵무기가 철수되고 남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만 보충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주한 핵무기의 철수는 북한의 핵사찰 문제를 마무리 짓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핵안전협정 공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작년 여름에 나온 디펜스 모니터지의 다음 보도가 잘 요약하고 있다. "남한에서 주한미군 보유 핵무기가 철수되고 남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만 보충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주한 핵무기의 철수는 북한의 핵사찰 문제를 마무리 짓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핵안전협정 공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작년 여름에 나온 디펜스 모니터지의 다음 보도가 잘 요약하고 있다. "남한에서 주한미군 보유 핵무기가 철수되고 남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만 보충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주한 핵무기의 철수는 북한의 핵사찰 문제를 마무리 짓게 될 것이다"

또다시 강행된 통일의 걸림돌

팀스피리트 훈련의 현재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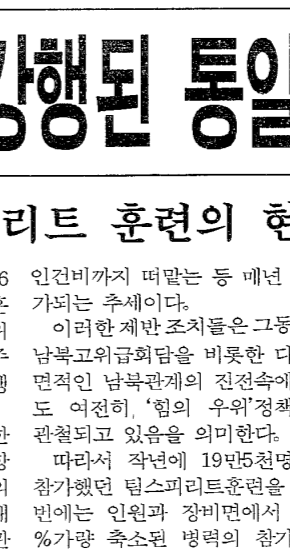
팀스피리트훈련이 실시된 76년 이후 남한과 미국은 이 훈련의 목적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방어적 훈련이라 주장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강행하였다.

이른바 '핵 개발 여부'도 불투명하다. 미국은 영변의 원자력 시설이 핵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사실여부도 현재로서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최근 미 당국자들도 북한의 핵개발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언급하고 있다. 작년 4월 미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월코프게 국무차관이 "북한이 핵무기 개

이긴 때문이다. 이같은 점들에서 우리는 미국이 핵안전협정 가입을 무기삼아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고 북한을 고립화하기 위한 공세를 펴고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것이다. 사실 이같은 주장은 우리 진보적인 민주세력만의 것은 아니다.

이 북소리는 관변과 보수적인 진영사이에서도 공감을 넓히고 있다. 지난 3월11일 전적 합참의장-국방장관-교수 등으로 구성된 한-미 관계위원회(공동의장 스킨리프, 김경원)가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가 철수해도 한국의 안보에는 지장이 없다"고 회견문회에서 솔라크 의원이 "남한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가 북한의 핵개발 근거가 되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방안의 핵기초를 높일 것"에 대한 진보적인 안전장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그 좋은 예다.



최근들어 북한의 핵시설 동시사찰로 부터 한반도 비핵화, 핵안전협정 미체결국, 전세계 37개국이나 돼

미국- 핵확산 빌미로 군사적 우위의도

북한- 주한미군보유 핵무기 철수필요

이것이 바로 '핵안전협정 공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작년 여름에 나온 디펜스 모니터지의 다음 보도가 잘 요약하고 있다. "남한에서 주한미군 보유 핵무기가 철수되고 남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만 보충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주한 핵무기의 철수는 북한의 핵사찰 문제를 마무리 짓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핵안전협정 공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작년 여름에 나온 디펜스 모니터지의 다음 보도가 잘 요약하고 있다. "남한에서 주한미군 보유 핵무기가 철수되고 남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만 보충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주한 핵무기의 철수는 북한의 핵사찰 문제를 마무리 짓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핵안전협정 공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작년 여름에 나온 디펜스 모니터지의 다음 보도가 잘 요약하고 있다. "남한에서 주한미군 보유 핵무기가 철수되고 남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만 보충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주한 핵무기의 철수는 북한의 핵사찰 문제를 마무리 짓게 될 것이다"

또다시 강행된 통일의 걸림돌

팀스피리트 훈련의 현재적 의미

팀스피리트훈련이 실시된 76년 이후 남한과 미국은 이 훈련의 목적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방어적 훈련이라 주장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강행하였다.

이른바 '핵 개발 여부'도 불투명하다. 미국은 영변의 원자력 시설이 핵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사실여부도 현재로서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최근 미 당국자들도 북한의 핵개발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언급하고 있다. 작년 4월 미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월코프게 국무차관이 "북한이 핵무기 개

이긴 때문이다. 이같은 점들에서 우리는 미국이 핵안전협정 가입을 무기삼아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고 북한을 고립화하기 위한 공세를 펴고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이것이 차세대 VGA 컴퓨터!

VGA

컴퓨터!

금성 마이티 286M

VGA가 기본배정된 금성 마이티 286M은, 기존의 AT급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VGA기능을 실현해 드립니다. 금성 마이티 286M을 통해, VGA의 특징점들(다채로운 칼라표현, 선명한 화질, 완벽한 비디오 호환성) 손쉽게 이용해 보십시오.

1 고해상도 SUPER VGA재용 HERCULES에서 VGA까지 완벽 호환성 실현

2 별도 VGA Board 구입비용이 필요없는 혁신적 가격

금성 컴퓨터

금성사

VGA란?(VIDEO GRAPHIC ARRAY)

개인을 컴퓨터의 고해상도 실현을 위해 가장 깨끗한 화질의 표현은 물론 컴퓨터 그래픽에 필수적인 최대 256가지의 COLOR 표현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화면 출력방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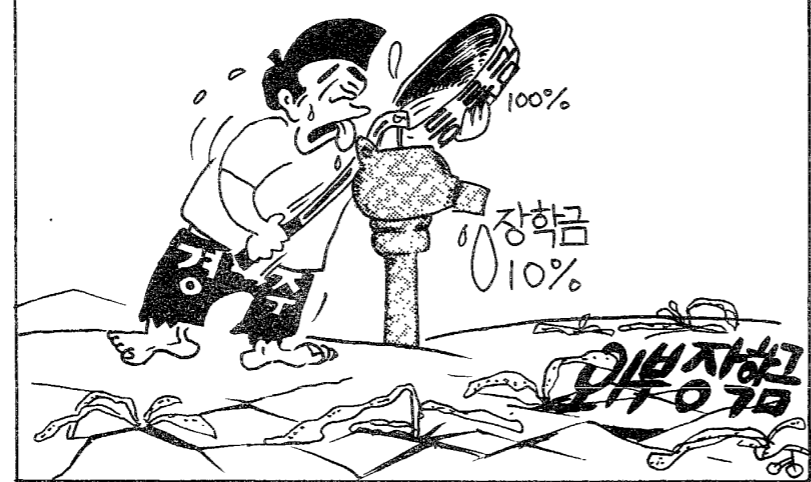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75 (역키금성 마포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4-1 (역키금성 강남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4-1 (역키금성 강남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4-1 (역키금성 강남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4-1 (역키금성 강남점)

종류만 많고 수혜자폭 적은 외화내빈

경주캠퍼스 장학금 운영방향 모색

대학에 입학한 후 누구나 한번쯤은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생각하며 장학금을 목표로 그리고, 부모님께 호도하듯 노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국에서 교외장학금이 가장 많은 학교 그러나 경주캠퍼스 학생들은 이 많은 장학혜택을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어떠한 근거로 장학혜택이 주어지는지 알지 못해 있다.

본문에서는 경주캠퍼스 장학제도를 살펴보면 서로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학생수는 증가하고 등록금도 오르면, 장학혜택은 증중결을 내리고 있다.

이 유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경제적 사정도 확보되어 있으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교내 행정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교내 장학금으로는 신입생에게 입학성적에 따라 명진, 학원, 해외, 동국장학금으로 졸업시까지 평균 학점 2.5 이상인 경우 지급된다. 재학생은 성적우수장학, 근로 장학, 가사장학, 보훈장학, 장학장학, 고시장학 등이 있으며 불교종립대학으로서 불교장학이 있고 학기당 이수학점이 17 학점이상이 되어야 자격이 된다.

교외장학금으로는 동경회 장학금 육영재단등 70여 종류

또한 경주캠퍼스의 경우 서울캠퍼스에 비해 교외장학 수혜의 폭이 훨씬 작은데 70여종의 교외장학 중 경주캠퍼스에서는 10여종만 지급된다.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가사장학생들을 각과에 임명하여 학과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데 '성적이 양호하고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라는 지급조건이 있으나 대개 학과의 경우 성적순으로 지급되고 있어 보다 공평을 기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신입생 장학금 지급방법에 있어서도 지급조건의 조정에 좀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90년

1. 글에 들어가며

해마다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며 치러지는 대학입시에서 보듯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상 대학교육이 보편화되었다고 과언이 아니다. 입시를 치르고 선택된 대학생이라는 자부심이 채 가시기 전에 높은 물가인상·인건비·재단의 전입금 부족등으로 해마다 치솟는 등록금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배학기 부담감도 다가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8학기에 걸쳐 매년 엄청난

등록금 총액의 10%차지... 교외도 10여종뿐 재원확보 위한 다각적 노력 절실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들로서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에게도 노력의 결과로서 상당한 '장학금'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몇몇 학생이나 받는 것으로 인식되어있고 경주캠퍼스의 경우 장학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장학제도에 대한 실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장학금의 지급내역과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장학제도의 문제지점을 통해 장학제도의 올바른 개선에 노력하고자 한다.

가 있고 교외장학금 선발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의 장학규정과 장학제도의 요구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장학금은 총등록금액의 10%내외로 책정된다.

90년도 2학기 장학금지급보고에 따르면 교내장학이 4억6천432만2천500원을 재원으로 1천5백49명에게 지급되었으며 교외장학은 6천1백32만6천9백50원을 재원으로 1백30명에게 지급했다.

교내장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적우수장학(명진, 학원, 해외, 동국, 일반장학)이 5백32명에게 1억8천8백34만8천7백50원이 각 단체·과별로 지급되었다. 근로장학은 61명에게 기성회비면제, 월7만원지급으로 3천9백13만1천5백원이 지급되었는데 교내 각과나 행정기관에서 요청 학생수에 따라 학생과에서 접수신청하여 배치 근로

수가 70여이거나 경주캠퍼스에서는 10여 개만의 장학혜택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3. 현행 장학제도의 문제점

올해의 경우 등록금부족의 성과로 그간 장학수혜학생중 근로·가사장학생을 대상으로 10%를 증가한다고 하여 장학제도 수혜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본고의 경우 등록금 총액의 10%만이 장학제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재원으로 성적우수장학 뿐만 아니라 근로·간부공사장학, 보훈등의 모든 장학이 등록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처럼 성적우수 장학의 확대와 근로·가사장학의 확대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재단전입금의 확보로 인한 장학제도의 확대가 요청된다.

(이형숙 기자)

◇경주캠퍼스 연구소 실태 연구하는 부설기관으로 제자리 찾아야

1. 들어가는 말

각 학교마다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 부문별 학문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두고 있다.

경주캠퍼스 '경주'라는 지역성과 학과 특수성을 살린 연구소를 두고있으나 예산과 인적지원이 미비해 연구소가 명목상의 활동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연구소가 있는것을 알고 있지만 각 연구소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이와함께 나타나는 문제

가 있다.

신라문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라불교·문학·역사·미술등 제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문화의 지위를 재조명할 목적으로 지난81년 설립된 신라문화연구소(소장=김경주·국사학)는 올해로 설립10년째를 맞고 있다.

신라문화관계 고문연구실, 연구발표회 및 전시회, 논문집 '신라문화'발간을 1년 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라문화연구소는 10주년제인 올해에는 기념심포지엄과 경주고문연구

하면 신라문화에 대한 자체연구는 미비하다.

사찰조경연구소는 사찰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전통조경의 연구를 통해 현대조경의 좌표를 설정하는 단서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73년 설립되어 매년 조경분야전반에 관한 학술 발표회, 사찰조경논문을 기관지로 발행하고 있다.

소장인 연구·운영위원, 간사·조교 4인씩을 두기로 되어있는 구성과는 상반되어 올해 정년퇴임한 손창우(조경학)교수가 소장을 맡아 운영해오

이와 별반 다를 상상이 없는 한의약연구소(소장=김길원·한의학)는 중공과의 교류, 한의학에 관한 이론의 대중화와 새로운 연구실적을 밝히고 의과대학·체계를 목적으로 작년(90년) 7월 설립되었다.

한의약연구소의 경우 설립은 되었으나 작년에 예산도 책정되지 않고 연구사무원도 없이 현재까지 연구는 문집발간을 위한 자료조사만 하고 있다.

재정지원 부족으로 연례적사업에 그쳐 지역특성 살린 실질적 연구성과 기대

점과 대안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각 연구소의 실태

경주캠퍼스의 연구소에는 경주캠퍼스 학과인 조경학과와 본고와 불교종립학교인 특수성을 살린 사찰조경연구소(寺刹造景研究所), 경주라는 지역성에 근거한 신라문화연구소(新羅文化研究所), 한의학과와 특색을 살린 한의약연구소(漢醫藥研究所) 등 총3개의 연구소

를 연차적으로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고 논문 8-9월집 간행을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

3개의 연구소중에는 예산지원이 가장 많으나 소장과 조교 1명이 있을뿐이고 사업과 위상에 비해활동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또한 신라문화연구소산학 역사·고고(考古)·불교, 어문연구실을 두기로 되어있으나 명목상의 조직일뿐으로 학술회, 논문집발간의 1년 사업을 제외

다가 올해 손창우의 퇴임이후 소장도 없는 상태로 휴광(조경학)교수가 차관으로 임명된 상황이다.

주요사찰의 공간체계, 토지이용, 동선등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사찰의 외부공간에 대한 원형재현, 고조경 전통조경기법에 관한 제·연구진행등의 연구는 아예 입부고 내지 못하고 연구소도 담당 책임자도 없이 그간의 자료만 보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사찰조경연구소의 실정이다.

3. 문제점과 대안

경주캠퍼스에 있는 연구소는 공통적으로 예산·연구위원의 미비로 연구논문집 관련학회와의 연례적인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자체 기획을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준비는 입부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캠퍼스의 특수성에 맞는 연구소를 설립해놓고 부문별연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지원도 없는 상황에 연구결과를 바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최소한 연구위원을 설정하고 연구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의 학교당국과 재단의 재정·인적지원을 함께 연례적인 행사에만 그치지 아니라 각 연구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연구열의가 결핍될때마다 경주캠퍼스 부문연구소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부)

경주지역 문화운동 현주소와 새방향

경주하면 흔히들 신라를 떠올리고 '고도'경주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큰 능들이 시내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고 조그만 시내를 벗어나면 절경대, 불국사, 석굴암 등 관광인내도나 혹은 교외에서 배웠던 많은 유적들을 뒤채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수학과 여행을 갔을때 경주에서 왔다고 하면 경주가 볼 것이 더 많은데 여기까지 왜 왔느냐는 질문을 받을때쯤 경주는 유물, 유적이 많고 배울 것 많은 도시로 알려져있어 볼-가을이 되면 관광객들로 붐비게 된다. 그런데, 사실 경주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경주하면 흔히들 신라를 떠올리고 '고도'경주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큰 능들이 시내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고 조그만 시내를 벗어나면 절경대, 불국사, 석굴암 등 관광인내도나 혹은 교외에서 배웠던 많은 유적들을 뒤채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수학과 여행을 갔을때 경주에서 왔다고 하면 경주가 볼 것이 더 많은데 여기까지 왜 왔느냐는 질문을 받을때쯤 경주는 유물, 유적이 많고 배울 것 많은 도시로 알려져있어 볼-가을이 되면 관광객들로 붐비게 된다. 그런데, 사실 경주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경주하면 흔히들 신라를 떠올리고 '고도'경주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큰 능들이 시내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고 조그만 시내를 벗어나면 절경대, 불국사, 석굴암 등 관광인내도나 혹은 교외에서 배웠던 많은 유적들을 뒤채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수학과 여행을 갔을때 경주에서 왔다고 하면 경주가 볼 것이 더 많은데 여기까지 왜 왔느냐는 질문을 받을때쯤 경주는 유물, 유적이 많고 배울 것 많은 도시로 알려져있어 볼-가을이 되면 관광객들로 붐비게 된다. 그런데, 사실 경주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경주하면 흔히들 신라를 떠올리고 '고도'경주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큰 능들이 시내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고 조그만 시내를 벗어나면 절경대, 불국사, 석굴암 등 관광인내도나 혹은 교외에서 배웠던 많은 유적들을 뒤채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수학과 여행을 갔을때 경주에서 왔다고 하면 경주가 볼 것이 더 많은데 여기까지 왜 왔느냐는 질문을 받을때쯤 경주는 유물, 유적이 많고 배울 것 많은 도시로 알려져있어 볼-가을이 되면 관광객들로 붐비게 된다. 그런데, 사실 경주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옛것을 올바로 계승 발전시켜야 굴절된 경주문화 되살려야 할때

으로 지원이되어 행사가 참여한다. 물론 신라문화의 제대되던 모습을 위해 노력하는 이렇듯 본들의 노력은 높이 사야함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유적이거나 유물로 대변되는 신라문화와 향락도시로 흐르고 있는 오늘날의 굴절된 경주문화 사이에서 올바른 목표설정과 비판, 그리고 여러 학살들을 절제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새로운 문화 창조를 내는 모습들이 이제는 필요한 때이다.

으로 지원이되어 행사가 참여한다. 물론 신라문화의 제대되던 모습을 위해 노력하는 이렇듯 본들의 노력은 높이 사야함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유적이거나 유물로 대변되는 신라문화와 향락도시로 흐르고 있는 오늘날의 굴절된 경주문화 사이에서 올바른 목표설정과 비판, 그리고 여러 학살들을 절제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새로운 문화 창조를 내는 모습들이 이제는 필요한 때이다.

으로 지원이되어 행사가 참여한다. 물론 신라문화의 제대되던 모습을 위해 노력하는 이렇듯 본들의 노력은 높이 사야함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유적이거나 유물로 대변되는 신라문화와 향락도시로 흐르고 있는 오늘날의 굴절된 경주문화 사이에서 올바른 목표설정과 비판, 그리고 여러 학살들을 절제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새로운 문화 창조를 내는 모습들이 이제는 필요한 때이다.

으로 지원이되어 행사가 참여한다. 물론 신라문화의 제대되던 모습을 위해 노력하는 이렇듯 본들의 노력은 높이 사야함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유적이거나 유물로 대변되는 신라문화와 향락도시로 흐르고 있는 오늘날의 굴절된 경주문화 사이에서 올바른 목표설정과 비판, 그리고 여러 학살들을 절제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새로운 문화 창조를 내는 모습들이 이제는 필요한 때이다.

일본유학집중코스 시사순다이日本語어학원

4月15日 서울OPEN!

「시사순다이」는 순다이가 외국인을 위해서 개발한 집중일본어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한 국내최초의 프랜차이즈 일본어 전문 어학원입니다.

■ 순다이(駿台)란?
일본동경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총23개의 학교를 거느린 70년 전통의 일본 최대 학원그룹입니다. 최근에는 일본주재 외국인업체 및 공관원(BMW, Ford, BBC방송, 주일 EC대부부들)의 중역들을 위한 일본어 위탁 교육기관으로도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동경대학교(동경제국대학) 전체 신입생의 70%를 배출했던 순다이는 명실상부한 일본제일의 명문 학원그룹입니다.

■ 시사순다이는...
■ 교수전원은 순다이가 엄선한 일본어 교육전문가
■ 순다이가 한국인을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
■ 1일 7시간, 주6일, 총 900시간 수업
■ 이상적인 학급운영과 철저한 학사관리
■ 일본 본토 분위기의 독특한 수업방식
■ 일본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

총로27개교과교원24명
시사영어사빌딩 신관4층

(278)2904/5 (주)시사영어사 직영 시사순다이일본어어학원 강북서사영어사외국어어학원

만화스토리작가(원작가) 연수생 교육

그림은 그릴줄 모르나 문장력 및 만화줄거리 구성에 자질이 있다고 생각되면 본 프로덕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만화 스토리 작가란?

1. 만화 작품의 소재발굴
2. 만화 작품의 줄거리 구성
3. 콘티제작 (컷을 나누고 대사를 쓰고 그림연출을 지시하는 일)

교육과정 →
· 만화 스토리작가의 기본원칙
· 유명작품분석
· 컷배분의 기본 및 연출기법
· 내용구성법
· 작풍 분석
· 교육만화(학습만화) 구성

교육기간 → 6개월~10개월(능력에 따른 개인차가 있게 됨)
교육시간 → 매주 7시~9시 30분

교육상담 : TEL. 231-5793
· 서울시 중구 신당동 152-6
모두 모두 B/D 2층

교육만화(학습만화) 전문제작
바나 프로덕션 부설 창작만화 연구실

名門考試院

(하숙)

■ 가까운 곳 (도보5분)
■ 저렴한 곳
· 독실 15만원대 (3식포함)
· 2인실 15만원 (3식포함)
· 다인실 13만원대 (3식포함)

■ Room만 사용가능
■ TEL : 232-3435
· 237-6336

* 약도 *

장충체육관
이화은행
기업은행
신당동4거리
신당동

중구신당3동 372-43

씨중고자동차매매 (차량사고팔고) 사자실매 5809917550 상무 이광춘

심층진단

동국학풍새신으로 학문공동체 건설

1. 머리말

1천6백여년의 한국불교역사속에서 우리 동국대는 지혜의 체득, 자비의 실천, 불보전의 정진이라는 세가지 교육목표에 입각하여 85년의 전통을 가지고있는 민족사학이다.

불교정신이 지혜의 체득과 자비의 실천에 의해 자기완성을 하고 불교정토의 이상사회를 만드는 것이라함대 우리 동국대의 역할은 중대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들이 우리대학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 할수록 현실에 있어서 체제와 퇴보의 모습 또한 이에 비례함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아직도 지식인으로서 대학의 선도적역할에 대한 기대가 강한 우리사회에서 대학의 모습은 어떠한가?

민족대학의 지향이라 말할수 있을것이다. 민족대학의 정의를 대학설립의 인적·물질적태도의 민족적의에서 구하거나 교육내용, 교육성공에 기준을 두고 찾는것은 우리사회에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이사회에 민족대학을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문제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현재의 모습이냐.

흔히들 대학이 교육교육기관으로서 전문적인 학문연구집단들의 모임이라 할때 그 나름의 학문적 특색이 있을것이다. 이것은 학문종류 즉 '학풍'이라고도 표현한다.

6·70년대 우리대학을 다닌 선배들의 입을 통해 '동국대는 문화·사학·철학에서 훌륭한 연구성과를 쌓았다'며 자칭 일류동국의 학풍을 가졌음을 자부하는 한편 '요즘은 학교가 침체하는것에 대한 아쉬움, 또한 잊지 않는다.

학풍은 전통이나 따지고 하는 추상적이 아닌 구체화된 성과로서 다가온다. 대학이 학문을 탐구하는 연구의 장으로서 학문적 특색을 통한 신학문 창출의 동력이라함대 학문적 성과를 얼마나 가치화시켜 내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어진다.

이제는 미래를 지향하는 민족동국의 현실을 보자. 1천6백여년의 불교역사와 85년의 전통을 아무리 강조해도 개교이래 학생수가 50배, 학과가 10배에 증가했지만 열람실이 2천4백석밖에 안되는 낡은 중앙도서관은 1962년부터 변화없이 머물러 있다.

연구소가 20여개나 있어 결코 타 대학에 뒤지지 않는 숫자를 갖고 있지만 연구성과면에선 유명무실할 뿐이다. 또 학술제미나 빈틈이 치워질 새미나신 하나 제대로 보고있지 못한 재정빈곤의 실정이다.

이들에서는 앞에서 제기했듯 민족대학으로 우리대학이 올바른 자기학풍을 찾아나가고 대학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기여하는 학문탐구의 장으로서 제모습을 찾아보려고 한다.

II. 학풍새신의 현재

1. 대학원중심의 연구풍토

고등교육이 일반화 추세에 놓이면서 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추어 광범위한 교육을 하고 학문연구의 주도자로서 대학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 4년간의 학부시절 학문연구가 대학원으로 이어지면서 더 깊고 전문적인 자기분야를 갖고 그것이 하나의 집단이든 개인적이든 성과로 나타날때 하나의 학풍을 이룬다 할수있다.

89년 4월28일 진취적인 학문연구소모임을 표방한 인문사회과학연구회가 교수나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당시 인문사회 과학연구회 학술연구활동방향의 첫째는 우리민족의 주체적 관건에 서서 역사·철학·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예술등 계층과 창조적인 학문풍토를 대학원

풍토에 새로운 고민을 던져준다. 학풍이란 교육내용의 질적확대와 연구성과의 질적상승이라 함대 이런 역할의 큰 몫을 전하는 대학원의 구조적문제와 이의 해결을 학부중심의 과제로 들수있을 것이다.

민중 진보적인 학문과 사상의 육구보완에 한계를 갖는 대학원생의 중간자적 자기위위이다.

대학원에 전향한 학생들중 자기나름의 학습활동보다 강단에 서 보겠다는 의지를 갖는게 다수라면 일단 제도권에 들어간다고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원생들은 진보적이고 개방적인것을 요구하는 학부생과 보수적인 교수사이에서 중간자적 위치를 갖는다.

둘째, 교수의 연구분야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진보적인 내용과 창조적인 학문풍토를 대학원

한 대학의 학풍이 구체화될수 있는 것중에 하나가 학회활동을 들수있었다. 대부분의 학문영역들이 건공학회를 갖고 세계각국과도 교류를 벌이고 있다. 우리대학이 한 분야에서 타학교에 앞서는 연구성과를 갖고 학회모임속에서 우리대학위를 굳건히 해 나가는 것도 또한 학풍을 진작시키는 일종의 하나이다.

대학원중심의 연구활동들이 인문사회과학연구회에서 비롯듯이 동국의 정체된 학풍을 혁신하고 새로운 창조적 학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기한 제반사항들 뿐만아니라 동국사랑에 바탕한 대학원생들의 자긍심이 바탕이 되어야한다.

2. 불교를 중심으로 한 학풍

동국대학원 세인들의 생각에는

연구에 전념할 제반여건조성 시급

학문 대중화, 이론과 사상결합위해 공동연구

반분야를 조사연구하여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고 불교는 동국의 정제된 학풍을 혁신하고 새로운 창조적 학풍을 수립하며 세대는 우리사회의 현실에 근거한 '실시구시'정신의 실천적 지식인상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초보적인 학술

생 스스로 만들어 가기에 교수들과의 사고차이가 부딪치게 됨을 들수있다. 이것은 우수한 교수진의 확보와 아울러 전반적인 학내의 학문풍토의 변화에서 그 해결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연구에 전념할 제반여건조성 시급하다. 대학원생들이 대부분이 조교, 강사, 연구생의 형태들로 연구활동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부생들이 학부에서 연구내용을 더 심화시키려고 자기영역에 대해 더 심화시키는 학부에서의 인자배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스님들이 다니는 학교' 또는 '불교계에서 세운학교'정도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져 있다.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동대의 이미지며 타 학교와 구별지어질수 있는 동대의 특수성이다.

이처럼 우리대학이 불교종립대학으로 갖는 이미지를 전통따위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키워나가는게 중요하다. 그것을 교수사회를 개방하는것, 우수한 교수영입과 인재배출등을 통해 가능하게 되며 더욱이 중요한것은 불교의 현대화에 있다.

불교가 걸어온 우여곡절속에서 우리대학 또한 파란만장한 길을 겪어왔던 일들은 기억에 들수있을 것이다.

구한말 개화에 눈을 뜨고 명진학교를 건립할 당시의 고승들은 서구 학문에 대해 최소한의 학문적인 의욕을 지니고 있었다. 이후 명진학교가 동국대학교로 제대로 자리잡아가는 일제치하의 탄압, 63년 사립학교법 제정, 불교정화운동 명목아래 관선총장·이사들의 등장으로 접혀버린 오욕의 역사를 건기도 해야했다.

이 과정에도 우리대학은 불교의 자주성을 지키고 민족정기를 지키기 위한 싸움과 학문탐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것이 70년대 초반까지의 얘기일 것이다. 학교건립이 남았다고 그 학교에 대한 평가가 나쁘게 나올수있는것은 아니다. 학풍이 있을때 그 학교는 일류라 칭해질수 있는것이다. 바로 우리대학은 불교에 입각한 교육이념을 학부 탐구의 분야로서 투입할때만이 동국대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현재, 선학, 인철, 불교학파로 이

- ... 85년 역사의 성상을 자랑해 오며 민족 사학으로서의...
○... 긍지를 한껏 지니고 있었던 우리 동국대가 근래에 들...
○... 어 체제와 퇴보의 일로를 걷고 있다. 이것을 치유하기...
○... 위한 한 방편으로 과거 훌륭한 학풍을 오늘에 재조...
○... 명하고 새로운 동국의 학풍을 새워나가는 측면에서...
○... 이번 기사를 기약하게 되었다. 부디 새로운 학풍의 재...
○... 정립으로 학문공동체를 지양하기 위해 모든 동국인이...
○... 노력하길 바란다.

적 지질이라고 흔히 말한다. 한국의 학문사회가 외부적인 조건의 제약속에서 특정부류의 학문영역에 치우쳐 벗어나지 못한채 단지 이론을 위한 이론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올바른 학술활동을 통해, 학풍을 창조해내기 위해서는 '학문공동체'의 형성은 불가피하다. 학문의 대중화, 이론과 사상의 결합을 위해 공동연구는 필연적이며 이는 학문수준을 맞추고 방편에 있어 통일점을 이루는데서 학문공동체조성의 긴 안목을 바라날수 있다.

앞서 말한 이론이 현실변혁의 지침이라 했을때 학술활동과 공동연구를 통해 학문공동체가 형성된다면 이것은 곧 실천력들을 가진 학문공동체로 연결된다.

학문공동체를 인문사회과학연구회의 예에서 보듯이 아직 우리대학 내에서는 주체적 강제력을 못 띠고 공동연구를 제도권으로 막는 제도에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학이 학문공동체로서 자기위상을 정

립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한다. 대학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그 사회의 통제성을 파악할수 있는 인식을 전수하는데 그 기능을 갖고 그에 달한이 새로운 진보적인 지식의 창출을 위한 연구기능도 병행된다.

대학이 자율적이지 못하면 제도권안에 의식기치조차도 자유롭지 않다면 학문공동체는 조성될수 없다.

동국학풍의 새신은 우리학교의 현실을 전면 부정부패 버리기, 모순을 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해결할수 없다.

우리학교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속에서 하나하나 쌓아 공동연구에서 비롯, 학문공동체건설로 이어지는 학풍의 창조만이 동국발전의 일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남철우 기자)

◇역경원 어디까지 와 있다

'생활불교화'가 과제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항상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온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종단의 3대사업의 하나로 1962년 역경사업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종립학교에서 맡는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힘입어 9월26일 불교 총장이 본교에 부속기관으로 역경원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여 오다가 총장비 1억5천만원의 재정악재로 30년내 걸쳐는 장기계획을 기초로 1964년 7월21일에 개원식을 갖게 되었다.

역경원의 목적은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6년간에 걸쳐 조판된 불교문화의 정수이자 민족최대의 보인인 1,511부 6,802권 81,285의 고려대장경과 국내 고승의 저술을 한글로 번역·출간해, 국내외로 불교 교리를 만포하는데 있다.

시대에 맞는 문체와 체계를 갖추면서 난해하고 잡다한 술어의 통일된 기입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대장경을 간행함으로써 민족문화발전에 기여코자 한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역경원의 실적을 살펴보면 현대불교신서로서 문고판 '고려고승한신', 향가에 나타난 불교사상 50편을 간행했다. 또한 1776년 10월 불전간행위원회를 발족시켜 한국불교정통에 기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진흥과 그 장발을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오늘날 거족적으로 요정되고 있는 호국사상의 함양을 위하여 불교의 호국사상을 정립하고 전파하는 국민 계몽의 각종 불교전적들을 간행했다.

한편 한국불교학의 진흥을 위한 연구 논을 간행하여 국학개발의

일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같은 노력의 산물로 현대불교신서가 문고판으로 간행되었으며 불교정토의 간행, 불교학연구논총, 한국불교에 관한 자료의 발간, 정리, 기타 불교의 홍보를 위한 서적의 간행등이 나타나고 있다.

역경원사업의 주된것은 한글대장경 간행이었으며 부수적인 사업으로 한글 불교정토를 편찬·간행한 것이다. 한글 불교정토 편찬에서 간파할 수 없는 것은 첫째, 종래의 원형적이고 사본적인 교리의 나열로부터 탈피하여 읽어서 생활의 지혜와 교훈이 될 수 있는 실용성을 중심으로 엮어졌고 둘째, 올바르게 전체적인 불교를 이해시키고자 이

간행된 불교문헌서가 될 것이고 불교사신들에게는 신앙과 수행의 지침이 되어 참된 생활불교로 전환될 수 있는 한국불교의 실질적인 토착화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정토의 간행은 실로 큰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사업계획상 추진중인 '불교대사전'의 출간도 향후 2~3년안에 이루어진다고 불대 불교정토에 대한 좀더 심도깊은 연구는 완기를 찾을수 있을것이다.

역경원에서의 역경사업은 불교를 보다가깝게 접근할수 있는 방편이어서 한국불교문화의 정통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한편 불교를 중심으로한 불교연구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할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불경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현실이 막막한 시국에 불교의 재흥작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라 할수 있다.

한국불교문화 토착화 기틀 마련

재정 취약으로 역경사업 차질

느 중과나 교과의 이념에 치우치거나 또는 구애없이 통불교적인 바탕을 지닌것이였다. 셋째, 대장경이라는 엄청난 술에서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있게 가장 요한 부분을 간추려서 교은 우리말로써 알기 쉽게 풀이 옮겨놓아 방대한 대장경을 단 한권의 책에 의해서 한눈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한국불교가 지나야할 미래지향의 지가 불교정토에 담기도록 했다. 이밖에도 우리 한국불교의 전통과 특수성을 충분히 살리려고 한것도 편찬방침의 하나였다. 불교용어에 익숙치 않은 일반인에게는 읽어서 알기쉬운 그리고 다양하면서 통

사명을 하고 있으나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역경사업에 쓰여지는 재정적인 곤란은 어떤식으로 해소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미 번역된 경전들이 책으로 와닿지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91년 운영위원회가 오는4월중순경에 소집될 예정이지만 여기서 나올 사업계획의 주요한것이 대만야정환간작업을 비롯한 문고판 발행, 재관하여 관계하는 수억금을 통해 새로운 역경사업을 추진시킨다는 것이다. 역경사업을 통해 불교의 참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 나갈 때 한국불교문화는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조인환 기자)

佛典類 韓國佛敎全書 全10册 한국불교사상의 흐름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 '전서'는 한국불교사의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철학과 사상체제등 인접학문의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韓國佛敎全書편찬위원회 편) 月印釋譜 卷7·8(影印) [釋迦世尊의 三生談인 《佛譜詳節》과 그를 바탕으로 삼아 世宗이 佛譜佛歌 五八〇餘章인 月印千江之曲을 지어 모두 甲寅銅活字로 발간한 것을 그후 世祖가 두 책을 승판해서 板刊했다. (高翊晉 編) 學術新書 韓國寺刹全書(影印) 卷上·下 (權相老 編) 華嚴學 概論 (金仍石 著) 農業經濟學研究 (朱宗根 著)

좋은 책으로 학문의 새 지평을 연다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宋堯仁 著) 佛敎의 國家·政治思想研究 (金東華의 3인 共著) 所藏名品百選 (본교 박물관 편찬) 平安方言 研究 (金英培 著) 智異山 斷俗寺 神行禪師大鑑國師碑銘 (본교 박물관 편) 盤龜臺 (黃壽永·文明大 共著) 學校演劇 韓國佛敎思想史研究 (安啓賢 著) 韓國華嚴思想研究 (불교문화연구원 편) 韓國天台思想研究 (불교문화연구원 편) 韓國淨土思想研究 (불교문화연구원 편) 韓國密敎思想研究 (불교문화연구원 편) 韓國禪思想研究 (佛敎文化研究院 編) 韓國彌勒思想研究 (불교문화연구원 편) 三國時代의 佛敎思想 (불교문화연구원 편) 李光洙研究(卷上·下) (韓國文學研究所 編) 韓國金石總目 (張忠植 著) 朝鮮前期佛敎研究 (禹貞相 著) 百濟佛敎思想研究 (金煥泰 著) 普照禪師·寂然國師·玄化寺碑銘 (본교 박물관 편) 女性學의 理論과 實際 (여성학교재편찬위원회 편) 韓國演劇史 (張漢基 著) 韓國佛敎詩文學論 (宋 赫 著) 戰爭과 國家 (스트우심기 著·鄭鎮環 譯) 마르코프·체인 (金鍾浩 著) 佛敎와 諸科學 (본교 개교80주년 편찬위원회 편) The Ferryboat and the Wayfarer Buddhist Poems from Korea 「英譯 韓國佛敎詩選」 (宋堯仁 譯) 國語學論攷 (崔世和 著) 중국 과거제도의 사회사적 연구 (河炳謙 著·조은동 의 역)

동국대학교 출판부 간행 도서 목록 현대인권론(上·下) (韓範範 著) 희랍 비극론 (金長好 著) 時計列 分析 (金惠中 著) 韓國佛敎文學研究(上·下) (韓國文學研究所 編) 原始 韓·日語의 研究 (辛容泰 著) 신라연구논저목록 (신라문화연구소 편) 중세 서양과학의 조선전래 (李龍範 著) 삼국시대의 불교 (陸植培 著) 칸트 대 비트겐슈타인 (수잔프롬 著/김용정·배의용 공역) 大學의 理想 (東大新聞社 編) 東國叢書 韓國의 불교사상 한국불교사상의 근간을 형성하는 역사·사관·철학·윤리의 네가지 영역을 심도있게 파헤쳤다. (高翊晉 著) 한국경제의 진로 경제학의 순수이론에 바탕을 깔고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과 당면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權五哲 著) 一般圖書 退耕譯詩集 退耕 權相老博士의 遺稿를 정리한 것으로, 前篇 吳崑岡文集은 唐唐의 時調諷刺으로 25수가 收錄되어 있고, 後篇 棋巖香集은 時調의 漢譯詩으로 32수가 收錄되어 있다. Run For The Rainbow 英文學을 專攻하다가 天折한 김세경의 英詩 遺稿 70편이 실려있다. (김세경 著) 동국대학교 출판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내 전화267-831~9(교)·3341, 3342

엘리트

폐놀, 독재정권의 주기적 싸이클 드러내 '치산치수'는 사람위한 정치의 기본

‘낙동강 오염 전국 확산’이라는 큰 타이틀을 달고 중앙 일간지에 보도되기도 벌써 열흘이 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낙동강 폐놀 오염은 한낱 재벌기업의 폐수방출로 호도되고 있으며 국민 여론 또한 그 재벌기업의 자사제품 불매운동확산으로 이어지는 등 이러한 문제가 독재정권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는 본질적 측면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굳이 우리의 환경통치의 기본이었던 치산치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민에 의한 국민의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을 위한 국가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식수가 국가행정의

의 부주의로 이러한 이치구니 없는 사건이 터진데 대해 6공은 분명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국가의 대표조직이 과연.....

비단 낙동강 뿐만 아니라 영산강, 대구 금호강등에서도 현재 조사된 자료에 의할것 같으면 엄청난 악취를 동반한 오염된 물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박정희 정권부터 이어지는 독재정권의 국민연명 무마를 먹고, 근시안적 이익영양망 형성의 모순에 기인함을 알고 있다.

이런데 문제가 된 폐놀 오염 문제는 바로 영남권 지역주민의 식수가 되는 낙동강의 그것도 청정수역에 해당하는 중류지역에 구미공단이 들어섬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날수 밖에 없었던 문제였음을 지적하며 이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독재정권의 떡고물식 행정에 기인한 실례인 것임을 확신한다.

수사사건 비리가 온 정국을 휩쓸고 돌며 지지자 선거라는 ‘뜨거운 감자’를 내놓은 6공은 또다시 폐놀사건을 코카콜라로 유명한 현 재벌기업의 보상이라는 ‘떡고물’로 이익부영 위기를 넘기고 있다.

또한 우리도 이러한 ‘떡고물’이 끊임없이 재행되고 있는 독

재정권의 정경유착 속에서 모든 책임을 전제 기업의 공영화 운운하는 코카콜라 재벌기업을 또다시 독재정권에서는 어느 순간엔가 다시 키워줄 것이라는 추측을 확실하는 것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인 것이 아닐까.

따라서 우리 동양의 1만 학우를 비롯한 교수들과 직원들은 폐놀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6공 퇴진 투쟁에 한목소리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오늘도 오염된 한잔의 물을 마시며 이런 생각을 해본다. 6공의 행정책임자들은 욕시 알레사카에서 직수입된 깨끗한 물을 마시며 웃지 않을까.....

본과3·4년 경주서 서울로 달음박질

며칠전 일이었다. 임실삼습 때문에 서울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한 본과4학년전배가 경주에 들른 자리에서 “우리는 요즘 음유를 들으면서 수업을 한다”라고 대뜸 말하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잘못을 이해하지 못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서 순화를 위해서 맛있는 음악감상실이라고 만들어 주었냐?” 이상하다. 우리 학교가 그렇지가 않는데”하며 잔머리를 굴렀었다. 그러나, 그말은 대학원전물 4층에서 수업하던 선배들이 다과 학생회실이 옆에 붙은 5층으로 밀려올라 가면서 겪었던 수업중의 소음을 빚어서 한 말이었다.

그러면서 씨익 웃어버리는 마음쯤은 선배의 모습에 우리들 모두는 참으로 가슴이 아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등록금투쟁의 깃발이 높이 오르고 협상이 타결된다 안된다 하는 소리가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악순환의 반

문은 울지 않으며 그 크리를 푸는 열쇠는 몇 프로 인상이나 하는 숫자 놀음이나 아니라 안락한 의자를 박치고 나와 학생들과 대화를 찾아 나서는 행정실 무자들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송 산
(불교대 인도철학과)

본과3·4년 경주서 서울로 달음박질

본과3·4년 경주서 서울로 달음박질

며칠전 일이었다. 임실삼습 때문에 서울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한 본과4학년전배가 경주에 들른 자리에서 “우리는 요즘 음유를 들으면서 수업을 한다”라고 대뜸 말하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잘못을 이해하지 못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서 순화를 위해서 맛있는 음악감상실이라고 만들어 주었냐?” 이상하다. 우리 학교가 그렇지가 않는데”하며 잔머리를 굴렀었다. 그러나, 그말은 대학원전물 4층에서 수업하던 선배들이 다과 학생회실이 옆에 붙은 5층으로 밀려올라 가면서 겪었던 수업중의 소음을 빚어서 한 말이었다.

그러면서 씨익 웃어버리는 마음쯤은 선배의 모습에 우리들 모두는 참으로 가슴이 아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등록금투쟁의 깃발이 높이 오르고 협상이 타결된다 안된다 하는 소리가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악순환의 반

문은 울지 않으며 그 크리를 푸는 열쇠는 몇 프로 인상이나 하는 숫자 놀음이나 아니라 안락한 의자를 박치고 나와 학생들과 대화를 찾아 나서는 행정실 무자들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 규 형
(현대대의학과)

청결하지 않아 제구실 못해

‘나의 공간’이라는 주인의식 필요

학원관련 건물은 여학생감실과 그 위층에 여학생휴게실로 되어있다. 남녀공학에 다니는 여학생이라면 여학생휴게실이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는지 잘 알 것이다.

쉬는시간에 친구들과 과자와 커피를 먹으며 음악을 듣고

대화를 나누고, 아니면 혼자 창밖을 내다보며 사색을 즐기기도, 점심도시락을 먹기도, 또 피곤한 날 낮잠을 자기에도 그곳은 일품이다.

그런데 가끔 그곳은 여학생 휴게실의 편안함은 커녕 지적분함에 몸을 사리다가 오는 경우가 있다. 더러운 커피와 소파, 정리되지 않은 자리, 삐걱이는 탁자와 소파등, 또 옆에 달려있는 조리대는 지적분함을 한층 더한다. 하긴 무인이 없어도 더럽히기에 더 편한지도 모르겠다. 그저 용역아줌마들의 청소로만 휴게실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여학생감실은 여학생휴게실로 적극적으로 커튼, 소파등의 청결유지와 특강으로 실시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무용지불인 조리대를 다시 정리하는 등 아누하게 꾸미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보다 아누하고 예쁘게 꾸민다면, 사용하는 우리로서도 보다 소심해,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편한 마음으로 잘 쉬어가 이점 그대로 여학생들만의 휴게실로 제구실을 다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김 영 숙
(사범대 교육학과)

신념만이 자기자신을 살찌워

하나됨으로 노정권 퇴진투쟁벌여야

들릴 때는 굳은 ‘신념’을 가짐으로써 극복해야 합니다. 이 론으로부터는 역사와 조국에 의 헌신 속에서 성실하게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왜 어려운가를 알아내고 현명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라는 이군은 수감된 특이 제 경우엔 부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다가 끌려가는 식으로 군대를 갈 수는 없었죠. 군대를 거부하고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했던 모든 활동을 투쟁으로 정리하고 모범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점거에 들어갔던 23명 중 우리학교는 이군을 포함한 4명이었고 대개 2~3년씩 실형을 받았다고 회상한다.

“사실 수감되어 있으면서 처음엔 피해의식이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소나 동지들과 함께 ‘나로부터 싸우는 자세’로 그것들을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간 육중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정권 퇴진 투쟁, 5-18 규명투쟁등 지속적으로 싸워 왔습니다.”

예전보다 다소 넉넉해 보이는(심신으로) 이군은 그간 지난 생활들을 평가하면서 나타났던 사상현상의 오류, 단결을 못했던 활동들이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한다.

“운동을 하며 부딪히는 이리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회의로 자신이 혼

칠 수 있는 문제가므로 모든 학우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 당부한다.

현재 동학을 바라보며 느낀 점은 “자주적 총학생회가 학우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무척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분등 올바른 비판에 대해 결연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통일단결의 과정에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학우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호도에 관한 인신적인 회생에 몰들 물 모르셨으며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부모님께 효도하셨던 이고민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한다.

끝으로 전방에 대해서는 “밤이 깊고 내일이 안 보일수록 새날을 향한 자신의 신념

김영만 기자

기념비 낙서... 유아적발상 지양해야

우리 학교에는 여러 곳에 많은 기념비가 있다.

85년의 전통을 자랑(?) 하듯 넓고 허름한 건물에 비해 곳곳에 세워져 있는 비석들은 분명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그 비석들의 뜻을 새기고 보존하기는 커녕 요즘엔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비들이 훼손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본관 옆 만해시비는 많은 모임들이 열리는 장소로 사용되기 때문인지 ‘○동문화 모임’등 자기가 붙여놓고 하고, 사대 앞 사계동행 뒤에는 유성 색인펜등으로 부잡히 낙서가 되어 있다. 그 내용도 사람 이력에서부터 잡다한 얘기들이다.

우리가 산이나 명승지에 놀러 갔을때 바위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은 보다 유쾌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하물며 대학 내 비석들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산이나 명승지에 놀러 갔을때 바위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은 보다 유쾌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하물며 대학 내 비석들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산이나 명승지에 놀러 갔을때 바위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은 보다 유쾌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하물며 대학 내 비석들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산이나 명승지에 놀러 갔을때 바위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은 보다 유쾌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하물며 대학 내 비석들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산이나 명승지에 놀러 갔을때 바위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은 보다 유쾌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하물며 대학 내 비석들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산이나 명승지에 놀러 갔을때 바위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은 보다 유쾌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하물며 대학 내 비석들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산이나 명승지에 놀러 갔을때 바위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은 보다 유쾌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하물며 대학 내 비석들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산이나 명승지에 놀러 갔을때 바위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은 보다 유쾌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하물며 대학 내 비석들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산이나 명승지에 놀러 갔을때 바위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은 보다 유쾌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하물며 대학 내 비석들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산이나 명승지에 놀러 갔을때 바위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은 보다 유쾌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하물며 대학 내 비석들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산이나 명승지에 놀러 갔을때 바위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은 보다 유쾌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하물며 대학 내 비석들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산이나 명승지에 놀러 갔을때 바위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은 보다 유쾌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하물며 대학 내 비석들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산이나 명승지에 놀러 갔을때 바위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은 보다 유쾌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하물며 대학 내 비석들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산이나 명승지에 놀러 갔을때 바위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은 보다 유쾌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하물며 대학 내 비석들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산이나 명승지에 놀러 갔을때 바위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은 보다 유쾌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하물며 대학 내 비석들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산이나 명승지에 놀러 갔을때 바위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은 보다 유쾌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하물며 대학 내 비석들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산이나 명승지에 놀러 갔을때 바위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은 보다 유쾌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하물며 대학 내 비석들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산이나 명승지에 놀러 갔을때 바위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은 보다 유쾌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하물며 대학 내 비석들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신입생의 의식에 대해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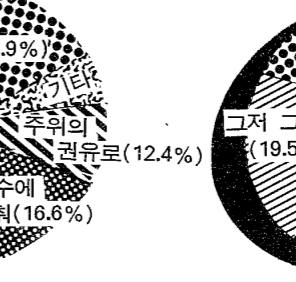
(통계조사 연구회)

이 밖에 대학에 입학한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공부, 동아리활동, 여행, 아르바이트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학교가 종합학교라는 복수성이 대학 선택과 종교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과가 허락된다면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체의 11.8%로 대부분이 전과할 생각이 없다. 고려해 보았다고 나타났다.

...전공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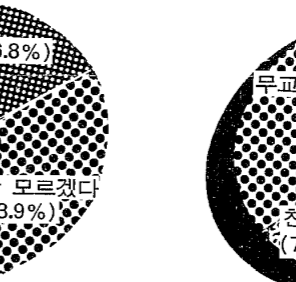
...캠퍼스에 대한 첫 인상은?



...귀하가 생각하는 대학 생활은?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호 영
(문과대 국문과85-제적)

선봉에서 힘차게 싸우다가 불합치 않게 생활하지 못하는 구속자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위해 지난날 3월21일 만기출소한 이호영(국문과85-제적)을 만나보았다.

88년 제20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으로 역임했던 이군은 89년 노대통령의 중간평가 거부에 대한, ‘기내적 중간평가 거부반대’와 ‘5공비리 청산’ ‘광주학생투쟁’ 등을 의지하며 민정당사를 끌어들였다.

그 당시 상황을 들어보면 “제가 총학생회 사임을 마치고 난 후 가장 커다란 문제로 다가온 것이 바로 군인대문제였습니다. 남학우들에게 있어 군대는 정말 많은 고민거리인 특이 제 경우엔 부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다가 끌려가는 식으로 군대를 갈 수는 없었죠. 군대를 거부하고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했던 모든 활동을 투쟁으로 정리하고 모범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점거에 들어갔던 23명 중 우리학교는 이군을 포함한 4명이었고 대개 2~3년씩 실형을 받았다고 회상한다.

“사실 수감되어 있으면서 처음엔 피해의식이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소나 동지들과 함께 ‘나로부터 싸우는 자세’로 그것들을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간 육중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정권 퇴진 투쟁, 5-18 규명투쟁등 지속적으로 싸워 왔습니다.”

예전보다 다소 넉넉해 보이는(심신으로) 이군은 그간 지난 생활들을 평가하면서 나타났던 사상현상의 오류, 단결을 못했던 활동들이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한다.

“운동을 하며 부딪히는 이리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회의로 자신이 혼

칠 수 있는 문제가므로 모든 학우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 당부한다.

현재 동학을 바라보며 느낀 점은 “자주적 총학생회가 학우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무척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분등 올바른 비판에 대해 결연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통일단결의 과정에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학우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호도에 관한 인신적인 회생에 몰들 물 모르셨으며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부모님께 효도하셨던 이고민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한다.

끝으로 전방에 대해서는 “밤이 깊고 내일이 안 보일수록 새날을 향한 자신의 신념

김영만 기자

주체적 참여로 학습권 확보 교과위조직으로 현안문제 조속해결

우리 관광경영(이하 관경) 학과에서는 한 학기가 시작될수록 벌써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관경이라는 과목이 있고, 수업을 받을 권리가 학생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확보되지 않아 강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7년, 선배님들의 가열찬 투쟁의 대오로써 외국인 교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지난 후 교수와 학교측의 계약약시 계약상의 문제때문에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아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학교측에서는 교수가 자리를 비우고 난 후의 상황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세워 놓고 있지 않다. 이러한 논리교과 이용하는 식의 안일한 학교측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우리는 ‘단결투쟁’이라는 현서를 쓰고 ‘외국인교수 확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투쟁에 임하면서 부총장, 또는 교무처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며 또한, 외국인교수를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말로써가 아닌 글자로써 받아내려고 했었다. 결국 우리는 1차협상을 부총장님과 가질 수 있었다. 여기서 부총장은 그곳이 바뀌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관경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내에 외국인 교수를 확보해 주겠다는 뜻을 구두로써 밝혔다.

교무처장과 가진 2차 협상에서도 문서에 사인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무처장은 사인은 사실상 못해주고 4월 2일에 있을 관광과 임시총회 때 200관광과도 앞에서 믿음직한 확

답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1차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구두로써 약속을 받았다. 이러한 교수진의 확보 문제로 고민하는 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본다.

88년도 학자투로 인해 정취해낸 교과과정위원회에서는 교수·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하며, 하루빨리 교과위가 조직되어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학문연구, 사상의 자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동 일
(상경대 관광경영학과)

이동일

이동일

이동일

이동일

이동일

이동일

이동일

이동일

이동일

이동일

이동일

이동일

이동일

이동일

이동일

이동일

이동일

이동일

20살 여성을 위한 에띠앙 광고페이지 2

여자가 아름다움에 눈을 뜨는 나이 스무살 그 감정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에띠앙이 태어났습니다. 잔잔한 페이스와 산뜻한 색상이 스무살의 아름다움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는 에띠앙! 누구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스무살이 되면 에띠앙과 만나세요.

에띠앙 / 그녀는 누구인가?

- 이름 : 에띠앙 (Etienne)
- 성 별 : 여(F)
- 나 이 : 18세 ~ 23세
- 취 미 : 음악감상, 가사여행
- 음 식 : 국수보다 라면이 더 좋아한다
- 생 경 : 유머가 풍부하고, 밤하늘을 좋아한다.
- 이미지 : 예뻐고 아름다운 연인을 상징

다음호에 에띠앙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당첨권은 4월 중 캠퍼스지 및 관대신문에 게재
● 0명 에 한하여 에띠앙장학금(연말기금)을 수여함.

아름다운 '에띠앙' 이야기로 장학생을 찾습니다

「사랑의비즈니스로 장악력(주) 신영에서 젊은층을 위해 만든 화운데이션-랜제리의 새이름 에띠앙은 여학생들의 상회 이미지 평가결과 자신들의 감정에 맞는 참신/신선/상류/성격 하다는 평을 받아 아름답게 태어났습니다.

귀엽고 아름다우며, 국수보다 라면이 더 좋아하는 20살 여성 에띠앙 - 조용하고 감미로운 시간엔 음악감상을, 외로움을 느낄때 기차여행을 즐기면서도 때로는 스스로를 길잡이 인생을 고민하는 에띠앙 이야기는 우리들 자신이며,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캠퍼스 인본에서 겪었던 여러가지 이야기를 소재로한 감각적이고 독특하며 유머감각이 풍부한 아름다운 에띠앙이야기를 찾고 있습니다.

에띠앙이야기 첫번째 주제

모든 여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첫번째 에띠앙이야기는 통속적인 사랑이야기 보다는 여러면들 감정에 맞는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로 에띠앙이야기 기법인 에띠앙 이미지 같은 독특한 감각의 「사랑의비즈니스」란 주제로 초대하겠습니다.

● 공모기간 : 18 - 23세의 여자대학생

● 공모요령 : 200자 원고지 12매 내외(우송시 반드시 필자의 사진 및 학교명, 학과, 학년,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 공모기간 : 4월 중순까지

● 모 내 곳 : 서울-구로구 가리봉동 345-54 (주) 152-020 (주) 신영광고부문의 855-9011-51

만해문학 이전의 불교적 지성들의 지위 복원 노력

서평

이 책은 1910-1920년대 한국문학사에서 논의되지 못한 국내 지식인에 대한 연구성과이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인 《1910년대 한국근대문학의 불교지성적 배경연구》를 개고하여 보완한 것으로, 특히 신·구 문학의 교체기에 주목하고 있다. 문학이 사회적 상징행위이며 특수한 담론형식이라고 할 때, 문학연구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한 시대를 규정하는 유형적 원리를 어떻게 추출해 낼 것인가라는 점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지식사라는 관점을 사용하여 동일한 사상적 배경에 기반 지식인의 집단적 조망과 그 개별적 양상을 함께 다룬다.



한국근대문학지성사

고재석 지음

(깊은샘나무)

이 책은 구분된 작가적 지위를 전유하고 있었다. 저자의 논의에서 검토되고 있는 점은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양진식의 문학사적 존재는 부각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이다. 한편 조선문학사(修史, 撰言, 立說)이라는 명칭을 통해, 민족문화와 보편에 한층 주력하고 있었

간하고 《불교개혁론》을 발표한 근대 지식인이자 학승이였으며, 이등화와 함께 한국불교사의 정리와 국학적 전통의 기반을 다졌다.

만해는 일본유학체제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불교적 전통에 힘입어 근대문화의 위력에 할복되지 않고, 불교의 개혁에

니고 있었다. 그가 한주국종제와 한문제 문장을 사용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보수적 사고가 어떤 계기를 통해 《님의 침묵》으로 비약하게 되는 것일까? 저자는 만해의 근대시적 비약과 성과를 타고르의 영향과 《惟心》지를 통한 그의 활동, 당대에 본격적인 단편소설을 쓰고 있었던 양진식, 박한영 등의 영향과 함께, 만해 자신의 내적 행동원리인 見性悟道의 체험과 그의 중론적 세계관에서 해답을 구하고 있다. 만해는 그의 《十玄講註解》를 완성하고 뒤이어 《님의 침묵》을 발표하면서 시대의 상징인식에 기인한 자신의 절망을 극복하는데, 요컨대 《님의 침묵》은 만해의 성숙한 중론의 의식과 그의 실천원리가 종교적 상상력

지닌다. 지금까지의 문학사적 연구는 주로 일본유학 세대들에 의한 성과에만 치중한 결과 국내 지식인에 의한 문학적 융진방식에 대한 폭과 깊이를 지닌 성찰이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서구문학의 반례적 요소가 늘 우위적 가치를 점유하는 정신사적 불구성은 치유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근대문학지성사》는 1910년대라는 '스픈 모순의 시대(양진식)' 혹은 '님의 침묵하는 시대(한용운)'에 소외된 국내지식인들을 논의의 장에 끌어와, 그들의 정당한 지위를 복원시키기에 착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지금까지 잊혀 한용운에만 집중되어 있던 1910년대의 지식인의 절대화된 가치가 불교지성을 중심으로 한 국내 지식인 집단에게

신·구문학 교체기에 쫓점...양진식·박한영 등 부각시켜

일본 유학세대에 의한 문학사 벗고 주체성 회복

다. 최남선은 특히 민족사학의 입장을 견지하였던 마. 마르코 스주의적 경제사회학자들(백남운, 이정원 등)로부터 비판을 받으나 본래 그의 지향은 《朝鮮》의 해명을 위한 소위 조선학의 수립에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념이 1910년대의 그로화된 사회적 맥락과는 또 다른 불교적 지식인의 한 가닥은 거시불교운동은 이른 이등화와 《그는 정신적 근대화의 근거를 불교에서 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불교학에 대한 용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그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문화적 독자성과 독립성을 구하면서 조선학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그리고 송만공과 박한영, 이들은 비록 근대문학으로의 인의의 전환을 시도하지는 않았으나 불교에 대한 시대적 사명에는 눈 뜨고 있었다. 박한영의 경우, 그는 천도교를 기반으로 한시적 전통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권에는 만해 한용운이 놓인다. 송만공의 경우, 그는 불교 선사의 전통을 계승하는 가운데서도 특히 삼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자아의 고통과 정신적 위기를 제시한다. 이들은 그러나 한시적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문체개혁의 측면으로 볼 때, 시대의 변혁에 조응하지 못한 결과 근대문학의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점은 양진식과 만해 한용운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공과는 근대문학 이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양진식과 만해문학의 직접적인 원천이 된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불교적 전통을 수습한 이 시기의 대표적인 국내 지식인은 권상모가 거론된다. 그는 비록 체제타협적인 개혁을 주장하기는 했으나 근대불교정치를 창

훈선의 힘을 기울인다. 그는 꿈, 근대문화의 수용의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자기 개혁을 통한 식민지의 극복을 시도한다. 그러한 결과가 곧, 《佛敎敎綱論》이며 《佛敎大典》이다. 만해는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문학관을 소유한 개혁 운동으로서의 자적 개혁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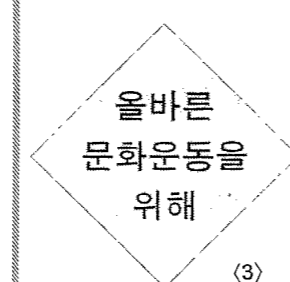
로 용해되면서 폭발한 산물이었다. 그러나 만해의 문학은 1910년대 불교적 지성들의 신전통주의적 논리의 문학적 형상화이자 하나의 극적인 생애이다.

이러한 저자의 논의의 이를 테면 1910-20년대에 걸치는 문학적 공백을 메우는 의의를

지 확대되었다는 점은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 문학의 근대적 전개의 고리를 되짚어 밝히는 주제적인 노력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유임하

(대학원박사과정 국문학전공)



(3)

“노래는 가장 보편적인 문화 형태다”라는 말을 두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첫째로는 그 어느 누구라도 쉽게 향유할 수 있으며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간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그것을 바탕으로 노래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이러한 보편적인 문화형태를 대학가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향유하고 있으며 그것의 명백한 한계규명하고 그것에 기초한 대안의 제시에 주력해야겠다.

1. 대학 노래대의 상황

대부분의 대학마다 동아리의 형태로는 단대나 파 소모임의 형태로는 노래대는 있다. 그리고, 사회변혁의 내용을 담은 노래를 대부분 향유하며 그것을 내용으로 패환동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필자는 여기서 그러한 대학 노래대의 활동에 대해 우선적으

로 긍정성을 부여하고 싶다. 왜냐하면, 사회현실을 외면한 이른바 순수라는 정무사가 불은 문화예술(이하 문예) 형태는 그 시대의 건강한 생활모습을 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향락적이고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반역사적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문예가 단순히 사회적 역할에만 치중하여 활용되어 진다면 그것은 문예의 본래 역할을 반감시켜 버린 채 단순히 선선전통의 도구로만 전락하게

신곡강습·기존곡 변형에 머물러 있는 수준

문예선전의 집중·통일위한 연합체 돼야

이러한 패환동에서 패환원은 진정 문예라는 무기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더불어 그러한 패는, 가혹하게 평가하면, 활동가 인제배출의 근거지로서만 이용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패환원의 자주성을 드높이고 목적의식적인 패환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2. 장르별 연합체 건설의 필요성

진정한 문예활동이 대중들 스스로가 자기인식요양의 훌륭한 도구로서 문예라는 무기를

기되고 있다. 예를들어 철학과 노래대에서는 패환원의 문예 활동을 담보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패환원의 문예에 대한 요구들이 문과대 노래대 연합이라는 중간단위에 결합되면서, 동국대학교 노래대 협의회(건준위)의 큰 단위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역량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큰 단위의 단위 모범의 집합과 그것을 정제화한 모범사례 발표 등으로 단위패들은 고립성을 극복하고 폭넓게 패환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연합

글 쓰는 차례

1. 문화의 문제점 고찰
2. 문학
3. 노래
4. 풍물
5. 미술
6. 민속극
7. 총평

체가 건설되면 단위패의 활동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결론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각 단위 노래대는 그 단위에서 노래에 대한 요구와 지향들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자주적 문예대중주의인 위상만 분명히 하면 될 것이고, 그러한 문제 제기가 행어 연합체 건설의 방향성을 흐리는 ‘페이거주의’나 소극적 패환동에 그칠때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연합체 건설의 또 하나의 목적은 학내 문예선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즉, 전일적인 선전 선동체계의 틀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3. 정리말

노래라는 보편적 문화형태가 지금 대학내에서 어떻게 향유되는가 알아 보았다. 그리고,

지금의 한계를 지적, 평가 하면서 필자는 연합체 건설을 제기하였다. 다시 정리하자면 연합체 건설의 목적은 첫째, 각 단위, 문예의 대중화의 근거지인 전학단위의 강화에 있으며 두번째로는 학내 문예선전의 집중, 통일성 확보에 있다. 올바른 문예활동은 대중들 스스로가 문예라는 무기를 쟁취하고 자신의 자주성을 드높이는 활동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이 무기 위해서는 전학단위인 과 노래대 단위의 강화가 목적의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단위노래대의 목적의식적 강화를 위해서 연합체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이 대법 (문과대 철학과)



시시비비

박명숙

(자연과학대교수 가정교육과)



신학기가 되어 학교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등록금 증전투

생, 교원학보 등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적은 벽보와 학과나 씨름에서 행사사항을 알리는 갖가지 정보로 넘치는 벽보이다. 그런데 가만히 읽고 지나보라 하면 이미 날짜가 지나버린 내용들이 한두개가 아니라, 붙인 위에 덧붙인 벽보 또한 한두개가 아니다. 그래서 어느 학생에게 물어보았다.

벽보를 붙이고 난 후는 어떻게 하느냐고, 대답은 붙이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었다. 다음 사람이 그 뒤에 붙이던지 때려리든.

학생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붙이기는 하나 그 뒤의 문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하다. 어찌 이게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행동이라고 나무랄 수 있을까마는.

아침에 눈을 뜨고 상쾌한 기분으로 신문을 펼쳐본다. 그러나 그 내용은 주로 산과 강이 싸이고 있으며, 따라서 마실공기와 마실물이 없다는 환경오염과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놀 수 없는 것 같다는 강도·유괴 등에 관한 소식들로 가득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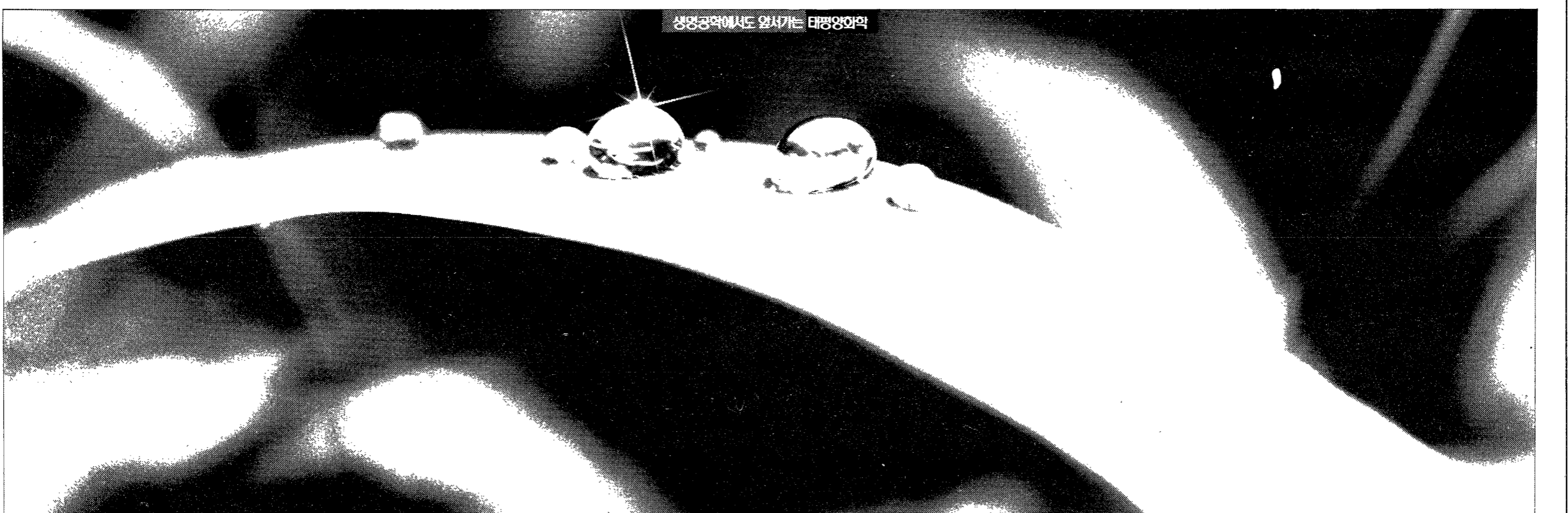
비보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입학 시험에 부정기 있었는가 하면 학교 내에서 학생이 교수를 때렸다는 소식까지 접하게 된다.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 기업들이 생산의 쪼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무관심할 수가 있었던 말인가? 그래서 부자는 몸도 적잖이 편견이던 편견이 상식화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

지하는 것인가? 적어도 생산이란 의미속에 는 투입(input)과 산출(output) 이외에 뒤 처리란 의미까지를 포함시켜야만 하지 않을까?

교육이란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를 생산하며 2세기에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그러한 교육제도에 가장 최고의 위치를 담당하는 대학에서 가장 신성하고도 엄격하게 평가되어야 할 입학시험에 ‘실력’보다는 ‘돈’이 우세했음을 무슨 말로 변명이 가능할까?

이제 우리는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이따가? 혹은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은 스승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은 아닌가. 기업의 잘못된 행동은 혹은 우리의 무관심에서 발생했는 아닌가 하고 말이다.



대자연의 순수한 입김으로 피어나는 이슬꽃— 이 순수함을 생각하며 화장품을 만듭니다.

대자연의 숨결로 맑고 깨끗한 새벽공기를 머금고 꽃잎에 맺히는 투명 이슬꽃— 그 맑고 투명한 이슬에는 순수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도 이슬같이 항상 순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 화장품을 만드는 일은 바로 피부의 순수를 지키며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화장품을 만들면서도 순수한 이슬을 생각하고 그 순수함을 배우고 따르는 아모레— 아모레의 모든 화장품은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아모레 순정은 17개 종합병원 피부과와 공동연구 개발된 보다 안전한 민감성 피부 전문화장품입니다.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대평양화학

경주 중앙교과위 조직체제 갖춰야

교수측...실체조차없어, 학생측...형식기구만 존재 하층단위조직 단대교과위 결집이 선행과제로

경주캠퍼스 중앙교과위원회의(위원장=김영우·수교4) 체계가 제대로 서지 못해 개별 교과위원 결집이 절실하다.

지난 88년 학자부8개시행중의 하나인 교과과정위원회가 경주캠퍼스의 경우에는 교과위가 있는지도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태반이고 지난해(90년)의 경우 특강주최가 경주캠퍼스 중앙교과위 사업의 전부인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금 91학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교과위는 88년 학자부8개항에 명시된 것처럼 보수적이고 낙후된 교과과정으로 인해 피보담보상상태에 있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체계의 정비와 학교의 두주체인 교수와 학생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과위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가 사업의 관건으로 지적된다.

특히 교수3인 학생3인으로 구성되어 교과목의 개폐를 심의, 결정하고 신규교수인용에 있어 교과목에 맞는 교수를 추천하는데 교수 및 학생의 의견

이 전적으로 반영되게 되어 있는 제도를 지켜내고 교수3인을 추종하는 등의 교과위 조직화가 경주캠퍼스 교과위 체계정비의 첫 단계 일 것이다.

또한 지난 1월 4일 학교당국과 학생대표에 합의된 신규교수채용에 관한 합의사항을 무시한 교수채용을 어떻게 저지하고 원칙을 지켜나갈 것인가는 사업도 계기이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중앙학생 교과과정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이하 정책부, 학술부, 연구부, 조직부, 사무부, 선전전담부 등 6부서로 구성되어 각과 교과위를 총괄 담당하며 학생들의 이해요구를 수렴하고 있으나 경주캠퍼스는 중앙교과위 조직을 올해 초 급히 구성되어 위원장 이하 사무부, 조직부, 홍보부체제로 되어 있으나 집행부조차 교과위의 뚜렷한 위상을 정립 못하고 서울캠퍼스의 모범사례를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초보적인 교과위 위상정립과 홍보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경주캠퍼스 국사학과와 영우교과위(위원장=박승연·국사3)가 건설된 교

과과정 개편과 학교·학생측의 합의에 의한 신규교수채용을 요구하는 등 어느정도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듯 경주캠퍼스 중앙교과위가 체계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어 그하부조직, 각단대교과위도 따라서 아직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단대는 거의 없이 중앙교과위에서는 각단대 집행부중 1인이 교과위를 담당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그나마 확정된 단대도 몇개밖에 안 된다.

중앙교과위에서 각단대교과위로, 각단대교과위에서 각과교과위로 체계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각단대교과위가 거의 유명무실화되다보니 각과교과위의 구성은 과교과위를 포함하여 파벌전 추진위 형태로 일부과에서 시도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90년 한해동안만에도 각과차원에 산발적인 부행동진행시켜 산발적공학과적립무능교수채용을 요구 40여일간에 걸친 농성, 집회, 점거 등으로 안락준교수채용을 이루어 냈으나 불교과과, 경제학과과

많은 과들이 뚜렷한 성과물없이 장기간의 부행을 끝맺어 일반학생들의 부정적 평가를 받아가고 있다.

교과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학교당국이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교수채용에 있어 교수 학생의 합의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자신의 인맥, 파벌에 의존하면서 학문연구와는 상관없는 시간만을 보내는 교수들의 기회적 모순과 일반학생대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한곳으로 결집하고 조직적인 교과위 활동을 통하여 실천해야 할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추상적인 건전개편에 머물러 있어 학생들의 고통을 자초한 학생중앙교과위에도 그에 못지않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과정위원회는 학생들만의 자치조직이 아닌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구성되고 학사행정 진전에 걸쳐 그간의 잘못된 점들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대학의 올바른 학문연구풍토를 건설하는 교수·학생의 행정조

지이다.

학교당국은 무성의한 태도와 교과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말미암아 학생들의 자치기구로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부행할 때 행취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과위 체계내에서의 문제점들, 우선 하층단위의 조직을 단대교과위와 각과교과위의 구성-모든 학우들이 함께 동참할수 있는 교과위-교과위 자체의 독립된 예산문제, 사무실문제-지금 학교에서는 자체예산 하나없이, 사무실조차 없이 총학생회장실을 함께 쓰고 있다-등의 해결과 교과위의 홍보작업 등도 일반학생들에게 교과위의 위상이 올바르게 정립됐을때 일반학생들도 교과위의 활동에 자주적 학문사상의 연구와 학사행정에 참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취재부)



◇“단결투쟁” 관광경영학과와 국사학과 교과위도 단위 교과위 건설을 위해 방향을 모색중이다. (이상현 기자)

국사학과 교과과정개편등 요구 관경·한의 학기내 교수총원 될듯

각 과별 교수총원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측과 협상에 들어갔던 경주캠퍼스 관광경영학과와 한의학과는 타과의 설마리가 보이나, 국사학과는 이미 교수총원과 교과과정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사학과 학생회는 지난달 27일 사무처장실을 점거하고 교과과정이 고대사에서도 지역적으로 치중했다고 지적, 고대사 실증사학 강의의 현대사 강의와 이에 필요한 교수영입을 요구했다.

국사학과 학생회는 사무처장실 농성전 과발전추진위원회(위원=박승연·국사3)를 구성, 교과과정개편에 따른 연구직업과 범정교수 확보를 조사를 마치고 교수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김갑주(국사학)교수를 비롯한 교수2인과 학생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면담에서 교수측과 교과과정개편, 한학강의 교수1인총원에

점정 합의했으나 문서확답이나 공청회, 공개토론회를 통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의견에 교수측이 공개적 답변을 피하고 있어 농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인 교수총원을 요구했던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은 지난달 27일 현실식을 갖고 교무과 점거농성에 돌입했으나 학교측의 즉각적인 교수총원

의사표명으로 지난 1일 농성을 해제하고 계속적으로 학교측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다.

또한 한의대 교수총원과 관련된 이견을 보이던 한의대교수와 학생들은 전임교수·강사를 학교측이 채용하고 한학강의 강의를 수행해 달라는 내용의 시정행위 해당학과의 반응에 따라 학생회와 교수측이 합의에 의해 추후강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한의대 백두산 기행 보고 불교입문강좌 열어 종교부

한의대 강변수교수의 '백두산기행 보고서'가 내일(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원효관(소강당II)에서 한의대학생회 주최로 열린다.

강교수는 지난 90년 하계방학중 백두산을 답사하며 촬영한 백두산 풍경과 약초등의 사진

을 슬라이드로 제작, 설명과 함께 슬라이드 상영으로 진행한다.

또한 신인생을 위한 불교입문강좌가 지난 2일 오후 5시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라는 주제로 이만(불교과)교수를 강사로 열었다.

이런 불교입문 강좌는 총학공부부 주관으로 원효관(소강당 II)에서 진행했다.

직원노조 정기총회

경주캠퍼스 직원노조(위원장=이강석·도서관 열람주임)는 지난달 29일 정기총회 열어 단체협약안 및 임금협상안을 확정했다.

조합원 1백27명중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효관4층 소강당 I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원의 범위를 총무, 관제, 경리, 기획홍보과장까지 확대한다 등 4개항목의 규정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직원인사위원회 구성과 직원임용기간의 설정해제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안도 의결했다.

또한 임금협상안은 기본급 9%인상과 5.8%의 임금인상을 포함, 14.8%의 임금인상을 학교측에 요구하기로 했으며 동결기 근로요원에 대해 근로수당지급을 신실하기로 했다.

고시장학생 27명 선발 독자적공간등 복지시설 시급

경주캠퍼스고시원(지도교수=우성기·법학)에서는 91년 고시장학생으로 사립고시원생 9명, 행정고시원생 10명, 공니회고시원생 8명 등 총 27명을 지난 2월 25일 선발시험을 거쳐 확정했다.

이를 가운데 9명은 수업료 전액면제, 18명은 수업료 반액을 면제 받게 된다.

◇수업료 전액 면제자

△법학3-전만환, 문윤성 △행정3-황보진 △행정4-인규봉 △법학(야)3-김정환 △법학(야)4-최철수 △무역3-서영관 △회계4-이기현, 김중경

◇수업료 반액 면제자

△법학2-정상우, 서정원 △법학3-이영란, 고용관 △법학4-오세훈 △행정2-노우석, 정세라 △행정3-서달영 △법

학(야)2-이윤호, 최기수 △경계4-나홍우 △경계2-김대원 △경계3-황권선 △회계3-이동기, 임종태, 김미경, 공중석 등 총 27명이다.

한편 경주캠퍼스 고시원은 서울캠퍼스의 계산학과와는 달리 전문4층 중앙강의실 크기의 공간을 쓰고 있는 실정으로 독자적인 고시학사, 또는 고시원의 복지시설 증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신·정형과 실습못받아 의대 임상실습 공간 넓혀야

본교 의과대학(학장=박수성·의학) 임상실습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약 8개월간 본교 포항병원(원장=김중명)에서 실시되고 있다.

의학과 4학년 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임상실습은 신경외과, 예방의학, 응급의학 등 22개과에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신과 정형과 등은 포항병원에 진단과가 없어 현재 실습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지난해부터 임상

실습에 필요한 공간확보등 실습환경개선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개선책이 없는 강의실에서 실습교육을 받고있다. 현재 임상실습을 하고있는 학생들은 "이제는 임상실습이 진도중이고 포항병원 자체규모도 부족해 실습을 고려하는 상황 이기에 임상실습이 이루어질 환경에서 진행되는것이 어쩔수 없지만, 경주병원원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자격고시 세미나 총학 취대국 주최

경주캠퍼스 제8대 총학생회 취업진로 대책국(국장=김진규·경제4) 주최 '91년 국가자격고시 교내세미나가 지난달 27일부터 이제(2일)까지 매일 오후 1시(소강당 I 원효관4층)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사, 판매사, 공인중개사, 측기사, 산업안전관리사 등 유망직종 자격고시를 중심으로 박광일(국가고시학) 전문연구위원(씨) 강의를 들었다.

부업알선 1백84명
단기 부업 선호

경주캠퍼스 학생과에서는 지난해 90년 아르바이트집계사항을 지난달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청자 총 2백55명중(남=1백61명, 여=1백34명) 1백84명(남=1백43명, 여=41명)이 알선제 희망자중 62.4%의 알선율을 보였다.

1개월 미만의 단기아르바이트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난 이번 집계에서는 판매사, 기업체, 금융기관등의 사무보조업무에 주로 알선되었다.

한편 학생들은 지난달 11일부터 18일까지 남자 90명, 여자 1백20명의 91년도 부업희망신청을 받았다.

포항병원 임투돌입 기본급 3만원도 안될듯

본교 포항병원 노동조합(위원장=김정문·간호사)이 병원(병원장=김중명·의학)과 6차

에 걸친 단체교섭을 갖고 지난달 27일부터 임금협상을 함께 실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단체협상은 조합원들의 근무시간, 근무수당 인상, 유예위협부서 근무시간 조정, 조합원 범위 규정 등에서 노·사가 이견을 보여 7차협상을 준비중이다.

또한 임금협상에서 노조측은 불가인상 및 경제성장률을 고려 8월 1월 1백32원(22.4%) 인상과 금양비 1만원 이상, 체력단련비 기본급의 1백%인상을 요구 직원 2백82명으로 노조측이 계산하여 5억6천여만원을 책정한 반면 병원측은 2억여원을 인상액으로 책정, 기본급 인상액이 3만원도 안될 것으로 보여 임금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를 제외한 단체교섭을 갖고 지난달 27일부터 임금협상을 함께 실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단체협상은 조합원들의 근무시간, 근무수당 인상, 유예위협부서 근무시간 조정, 조합원 범위 규정 등에서 노·사가 이견을 보여 7차협상을 준비중이다.

또한 임금협상에서 노조측은 불가인상 및 경제성장률을 고려 8월 1월 1백32원(22.4%) 인상과 금양비 1만원 이상, 체력단련비 기본급의 1백%인상을 요구 직원 2백82명으로 노조측이 계산하여 5억6천여만원을 책정한 반면 병원측은 2억여원을 인상액으로 책정, 기본급 인상액이 3만원도 안될 것으로 보여 임금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를 제외한 단체교섭을 갖고 지난달 27일부터 임금협상을 함께 실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단체협상은 조합원들의 근무시간, 근무수당 인상, 유예위협부서 근무시간 조정, 조합원 범위 규정 등에서 노·사가 이견을 보여 7차협상을 준비중이다.

또한 임금협상에서 노조측은 불가인상 및 경제성장률을 고려 8월 1월 1백32원(22.4%) 인상과 금양비 1만원 이상, 체력단련비 기본급의 1백%인상을 요구 직원 2백82명으로 노조측이 계산하여 5억6천여만원을 책정한 반면 병원측은 2억여원을 인상액으로 책정, 기본급 인상액이 3만원도 안될 것으로 보여 임금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대의원회 정기총회 총학집행부인준-오늘 출범식

경주캠퍼스 제8대 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 정기총회 출범식이 오늘(3일) 오후 3시 시청각실(도서관4층)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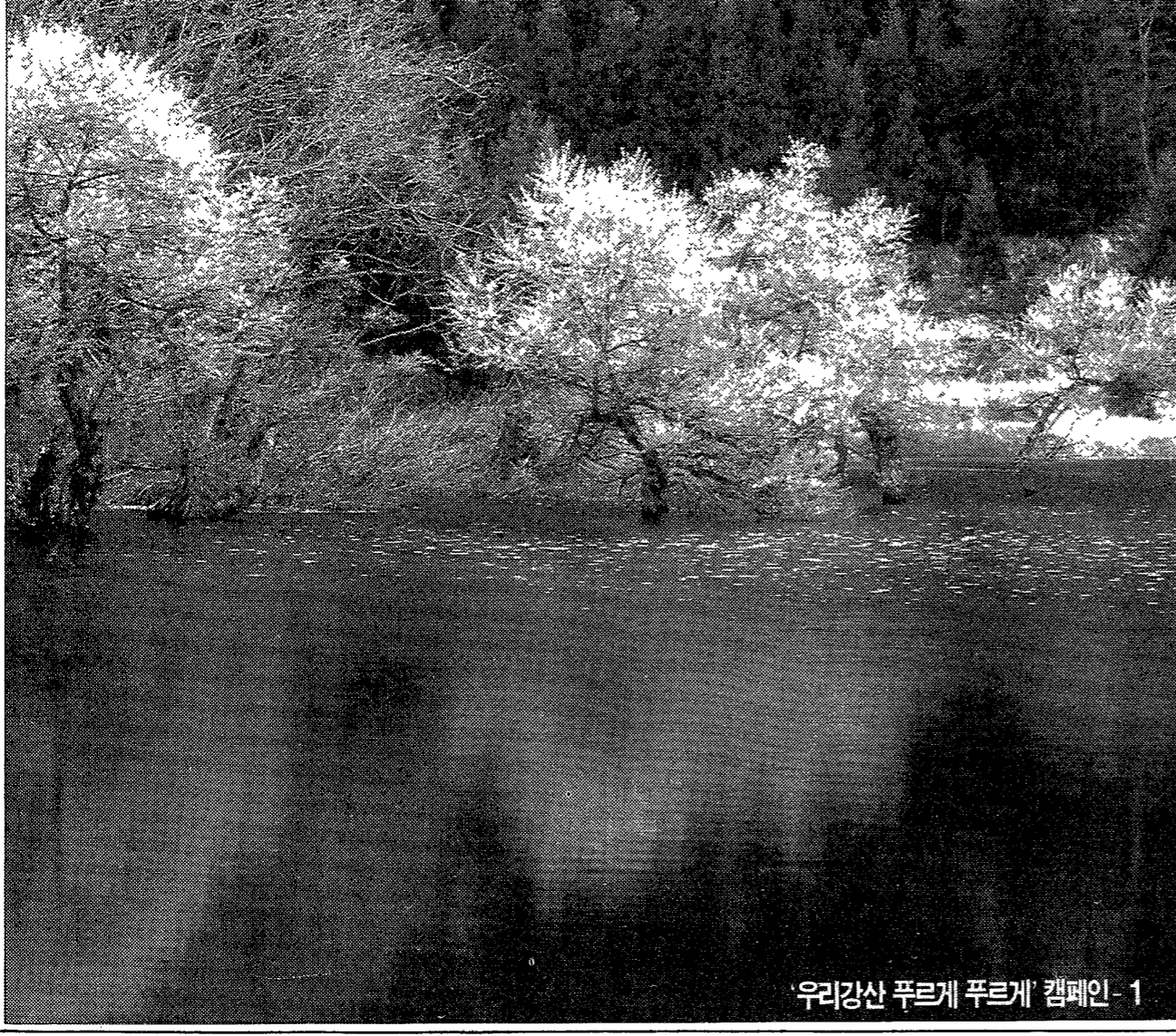
오늘 정기총회는 1학기에 산신 의 및 승인, 총학집행부 전원장 임명인준, 감사위원회, 90년 하반기 감사결과보고 등이 논의되며 정기총회가 끝난후 출범식을 갖는다.

한편 지난달 27일, 28일, 29일 사흘간 실시되었던 각단대대의원회 참석자에서는 △인문대=정상규(영문4) △자연대=한정환(조경4) △삼강대=박중호(경제4) △의과대=김대진(의학2) △한의대=김동일(한의학3) 군등이 당선되었으 며 법정대는 투표결과 찬성 4, 반대 7로 부결되어 오는 8일 재선거를 실시한다.

'겨레사람' 등 신규등록

지난달 19일까지 마감된 경주캠퍼스 동아리 신규등록가입 신청이 구비서류 미철부으로 인해 오는 4일까지 동아리 추가등록을 실시한다.

오늘(3일)까지 동아리연합회에 접수된 동아리등록 신청을 보면 가톨릭 신정을 한 동아리가 2개, 정시등록 신청을 한 동아리가 2개, 신규등록 동아리가 4개, 신규등록 동아리가 4개, 민족문제연구회 '겨레사람' 등 14개 동아리등이다.



水 물은 그리움입니다.

물은 자연의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물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겨울이 되면 날개옷으로 바뀌고 하에서 평평 내려옵니다. 봄이 되면 얼음옷을 벗어 버리고 봄비로 화답합니다.

장대비가 되어, 찬이슬로 소리없이 내려왔을 때, 무한한 물로부터 우리는 물을 변화의 천재로 말하기도 합니다.

소리가 있는 물, 빛깔이 있는 물, 움직이는 물- 그것은 자연이 선사한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물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동이 뜨거워 어느새 어머니는 한 그릇의 맑고 깨끗한 물을 떠올리시며, 간절한 소망을 빌고 있습니다. 곱게 빚은 머리에 단정히 한복을 차려입고 무릎을 꿇은 어머니 앞에 한 그릇의 물은 소망의 물이며, 사랑의 물입니다. 물에는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으며, 어머니의 헌신을 그렇게 맑게, 그렇게 단정히 이어갑니다. 어머니의 사랑-그것은 옛부터 내려오는 한 그릇의 정한수로부터 시작됩니다.

유한김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이렇게 펼쳐 왔습니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으며, 삼림자원 조성기금으로 10억여원을 산림조합중앙회에 기탁하여 각종 산림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림, 유림 및 산촌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약 13km의 산길을 개설하여 왔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나무관람대회, 여름나무캠프, 푸른꿈나무 글짓기대회를 펼쳐 왔습니다. ●4월 5일 한가득 한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매년 개최, 나무사랑을 널리 일깨워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심벌마크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맑은 물을 상징하는 물결모양과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함께 표현하였습니다.

유한김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1

눈보라 속에서 '한마음' 확인한 자리

민주세력 총단결을 위한 노래 한마당 을 다녀와서

지난31일 오후 연세대학교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정문에서 학생회관을 거쳐 노천극장까지 가득찬 시민들과 각 학교의 깃발을 휘날리며 여기저기 어깨를 걸고 열심히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의 모습은 모두가 하나라는 연대감으로 투쟁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듯했다.

이날 지난 30·31일 양일간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린 민주세력 총단결을 위한 노래한마당 '91자, 우리 손을 잡자'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자주적 민주시민·학생들의 모습이다.

한국 민족 예술인 총연(상임의장=신경림)주최, 국민연합 후원으로 열린 이행사는 정태훈, 김영남, 노태우를 찾는 사람들, 노동자 노래, 노래마을, 민요연구회, 민족음악 연구회, 새벽, 예술원이 참가하여 하나가 되어 손을 맞잡고, 뜨겁게 이계투쟁하여 연대하는 수 있는 자리였다.

총3부로 구성된 노래한마당은 1부 '우리', 2부 '우리네 살림살이', 3부 '이제 우리 손을 잡고'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우리가 노동자, 학생, 농민,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싸우는 민주시민임을 인식하며 '진짜노동자' '어머니'를, 감옥에 갇힌 투쟁자를 앞서 산화해 가신 열사들을 위해 '구속동지들'을 '남을 위한 행진곡'을, 문예일꾼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그날이오면'을 불렀으며 '노기리타령' '영산이의 일기'등을 불러 풍자의 의미를 맛보게 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땅에서 억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민주세력 총단결을 위한 노래한마당 '91자, 우리 손을 잡자'는 시민·학생들이 연대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꽃은 날씨에도 연대 노천극장 3만여명 모여 전대협-국민연합-전노협등 참가...단결된 모습 보여

아침은 민중들의 삶과 에너지를 그린 '꽃다지' '일급'을 불렀고, 정태훈씨는 '강물에서 수도꼭지까지'로 페놀사태에 대해 고집했다.

3부에서는 해방세상에 대한 애절한 꿈을 하나로 모아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결의하며 '전대협전군가' '철의노동자'를 힘차게 불렀다.

이이 민족총대 '디딤'과 국민연합 풍물대 '만관'의 흥겨운 풍물과 춤의 한마당이 어우러진 가운데 흥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자리를 차지하고 일어난 어깨를 넘실거리며 춤을 추는 사람들의 무리가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한 꼬마는 무대로 뛰어나와 신명나게 춤을 추고 이 자리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마당임을 가슴으로 느끼도록 만들었다.

이들이 하늘을 뚫어가고, 추위가 노천극장을 에워쌌으나, 뜨거운 가슴으로 추위를 녹이고 성냥을 그려 이들을 밝혀 노래한마당을 한껏 속

하며 즐겼다.

열기가 최고조에 달할 무렵, 김영남씨가 나와 '지금으로부터 40년'을 불러, 동지의 뜻과 열기를 하나로 모아 해방은 새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결의했다.

동지여로 하나된 사람들은 어깨를 맞대고 '동지' '단결투쟁'을 불렀다.

이날 공연에는 통일선구자 문익환목사, 국민연합 상임위원장 이수호씨등 제야인사가 참여하여 "싸우는 것만이 승리입니다.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해방세상을 앞당기도록 합시다"라고 밝히며 노가리박수 등의 율동을 따라하는 등 투쟁의 주체임을 확연히 나타내 시민·학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때마침 쏟아지는 눈보라속에서 열려 마이크가 끊기는 등 한때 혼란을 겪기도 했으나 서로의 뜨거운 동지애로 눈보라를 녹이며, 모두가 하나라는 연

대감에 자리를 뜰 줄 몰랐다.

무엇보다도 이날 행사에서 중요했던 것은 그동안 분열된 모습을 보여오던 전대협, 국민연합, 전노협 등의 조직적 참가로 자주적 대중조직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경애 기자)

함께 배워봅시다

어머니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어머니보다 더 크신 어머니, 어머니 조국 한반도의 산천을 위해. 자! 이제 출정이다. 반미구국 전선으로...

출정전야

1. 머 리 머 다시워으며 투쟁으로 일-어서 는
2. 내 조 국 한-반도에 청-춘을 바-치련 다

출 정 전 야 - 이 밤 도 빛 나네 새 비 별
통 일 조 국 - 산 천 에 베풀-을 우리 라 사 람
하 는 동 지들 과 투쟁 을 예 기 하 며 지 세
우 는 출 정 전 야 승 리 의 다짐 속 에
어머 님의 미소 처 럼 출정자들이 번 다
이서 가자 전선 으 로 반미구국전 선으 로

노동현장 마당극 '우리 한걸음으로'

놀이패 한두레는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노동자의 자존심으로 투쟁의 대열에 서야함을 자각해 나가는 노동자의 건강하고 끈끈한 생명력을 표현한 노동현장 마당극 '우리 한걸음으로'를 공연한다.

·일시: 4월4일~8일
·오류5시, 7시30분
·장소: 예술극장 한마당
·문의: 646-1939, 743-1266

'왕이 된 허수아비'

인간의식의 부재와 인간성 상실로 우리가 처해있는 암울한 상황을 그린 극단 예담의 '왕이 된 허수아비'가 예담 소극장 개관 3주년 기념으로 공연된다.

·기간: 4월12일~5월31일
·시간: 평일-오후4시30분, 7시30분
·공: 토-일-오후4시, 7시
·장소: 예담소극장(신촌로터리 서강대쪽 버스정류장앞)

제6회 시민·학생을 위한 민족문학 교실

·강의내용: 4월-시인과의 대화, 시창작은 이렇게 하라 9월-나의 창작경험, 여성의 현실과 문학 11월-노동문학에 대하여, 농민문학에 대하여 16월-우리 문학유산의 이해, 사실주의란 무엇인가

·시간: 오후7시
·장소: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육원
·주최: 민족문학 작가회의
·강사: 이오덕, 방형석, 정희성, 백낙청, 김형수의 디슈

·참가비: 1만원
·문의: 363-3968

업종회의 문화제

'손맛잡은우리, 전진하는우리'

·일시: 오는13일 오후5시
·장소: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출연: 업종회의내 각 노래패, 연합 풍물대
·특별출연: 정태훈, 도중환, 서유석
·주최: 전국업종노동조합 회의

'노래를 찾는 사람들'

여덟번째 정기공연

긴장한 삶의 노래를 추구하는 노래모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 치열한 삶과 역사의 현장에서 곱씹게 한 희곡을 그려 온 노래들을 전곡하여 여덟번째 정기공연을 갖는다.

·일시: 4월13일, 14일
·오후4시, 7시
·장소: 세종대학교 대양홀
·문의: 338-9948, 338-9949

동학의 터

사제동행

'師'의 도리를 존중하고 참된 교육의 길을 같이 하고자 사범대학의 교수와 학생이 뜻을 모아 이 비를 세우다

1984년 12월 학림관 앞 동산에는 '사제동행'비가 위엄있게 세워졌다.

이 비는 2천여 사범대학 학우들에게 학생이 나아가야 할 길과 졸업후 이땅에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참된 교육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

불교에서는 교사 또는 스승을 선지식(善知識)이라 하는데, 이는 범어의 Kalyāna-mitra에서 유래하며 우리말로로는 '진실한 벗'을 의미한다.

그리고, 천태종은 스승의 역할을 의호(外護), 동행(同行), 교수(教授)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외호'란 제자를 양육, 방어, 보호하여 일찍이 조화를 얻게 하는 것을 말하며, '교수'란 진리와 진리의 아님을 깨우쳐서 어리개지 방법으로 막힌 것을 풀어 주고, 끝내 스스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동행'은 함께 진리의 길을 가면서 서로 박마하여 나날이 새롭게 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본받아 사제는 진리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아담, 즐거움, 괴로움을 함께 하는, 그리고 인도하는 동반자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불교의 중용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스승은 교육자로서 모범을 언



(문화부)

▲"지 금도 성 산산에 는 갯벌에 나간 어린 소년들이 조개를 즐기다 바지락을 캐다 갑자기 하얀 해골이 튀어나와 비명을 치며 도망치는 일이 허다하다" 이글은 4·3제주민중항쟁을 소재로 다룬 이산하시인의 '한라산' 중에 한 구절이다. 이시인이 4·3 제주민중항쟁을 표현한 말-하얀 해골-허다하다-속에 우린 외롭고 험난했던 제주민중들의 외침과 그속에서 죽어간 8만여 양민들의 피눈물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친미반동세력, 우익테러단체의 준동속에 48년과 49년 사이에 30만 제주민중의 1/4인 7만명이 성산포 하안해골이 되었다. ▲지난달 31일 일본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연례군 총사령부 문서속에 태평양전쟁 한인포로 1천6백명의 명단이 발견됐다. 이중에 정선대로 끌려간것으

로 보이는 한인여성 1백명의 명단도 들어 있었다. 요 며칠사이 이 두사건을 접하면서 민족 스스로의 주권을 강탈하려는 미제와 일제에 맞서 반의세 자주화에 떨쳐서던 민중들의 몸짓이 이렇게도 가슴 저리다는것은 4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것이 계속되고있다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60년에 달하는 육중한 미군백크가 한반도의 전역을 누비며 불어오

고 있다. 제주도에서,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오직 한반도의 순결을 위해 해방을 위해 최후의 해골이 되고 일본강고매질에서 노리개로 산화해간 우리 선열들을 4·3제주민중항쟁 43주기를 맞는 오늘, 다시 떠올리며 아직도 미제가 판치는 오늘을 분개한다. ▲역사는 계속된다. 우리의 후손들이 성산포에서 조카나 바지락을 줘다가 하얀해골로 변한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일이 허다할지라도 성산포의 작은 평화를 얻는다면 주저치 말자. 오늘 총학생회주최 반미반독재구국투쟁선포식이 열린다. 총학 출범후 처음 열리는 정치투쟁이다. 4·3제주민중들의 숭고한 투쟁을 기리며 성산포의 작은 평화를 위해 4·3을 맞는 오늘, 청년학생들이 민족의 가슴을 누르는 60만 미군백크의 무게를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함)

하안해골

면 써가 뿌려져야할 땅을 짓는다는 뜻을 짓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 지자체에 온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이에 '91년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온밀히 치워졌다.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공격훈련이 북부조국을 목표로 한 핵탄두를 장착하고 정조기를 휘날리며 지금도 머리 위에서 벌어져

승태영 (6)

새로나온 책들

〈문화부〉

<p>현대시 창작교실</p> <p>이형기 지음</p> <p>지금까지 우리 '시'가 너무 자연 발생적인 데 의존하여 시의 이관쪽에 소홀한 점을 고려, 시의 본질이나 원리보다도 마상 시를 쓰려고 할때 당창적면하는 표현방법상의 어려움을 시각적의 여러가지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여 해설하고 있다. 시적에 직접도움이 되는 것들은 실제작품을 구체적 예로 들면서 여러 가지 표현방법을 알기 쉬운 시론으로 전개하고 있다.</p> <p>〈문학사상사·3권8백원〉</p>	<p>양명철학의 연구</p> <p>송재운 지음</p> <p>필자의 학위논문인 '陽明心學의 연구'를 다소 보완하여 펴낸 것이다. 양명철학이 불교의 영향 속에서 그 극복의 의지로 이루어졌음에 관한 불교의 심오하고 양명학의 심오한 유사성을 밝혀 놓았다. 또한 구사되고 있는 문장이 간명, 명쾌하여 독자들은 표현상 경이하나 그러한 내용의 난해함을 느끼지 않게끔 쓰여졌다.</p> <p>(사사연 권·5천원)</p>	<p>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p> <p>송희복 지음</p> <p>이 책은 주옥같은 모국어 시로 정시의 명편을 정선하여 필자의 견해를 곁들이고 있다. 김소, 임화, 이상화, 이육사, 윤희중, 김현수, 정경주, 조지훈, 고은, 신경림, 김지하, 정희성등 60여명의 시인과 그들의 시80여편에 대하여 해석을 해놓음으로써 서정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고 있다.</p> <p>(늘푸른·4천3백원)</p>	<p>내이름은 티안</p> <p>돈오김 지음</p> <p>호주 및 영이권 문단 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호주문학상을 수상한 교포 작가 돈오김(본명 김동호)의 '월남전쟁'소설 단순한 전쟁의 참상과 비인간성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휴머니즘 차원에 머물러 있던 기존소설과 달리 이 책은 동화적세계에서 지라난 순수한 한 영혼이 극한상황 아래에서도 그 순수성과 근원적인 감성을 지켜나가는 극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p> <p>(전원권·3천5백원)</p>	<p>10대 성자의 가르침</p> <p>김정빈 지음</p> <p>이 책은 인류정신사상의 거봉을 이루고 있는 열사들의 주된 사상과 가르침 중에서 그 정수를 만을 가려 뽑아 요약해 놓은 것이다. 공자·장자·소크라테스·예수·부처·맹자·노자·바울·라마르티나·리나나·마리리쉬등 10인의 사상이 수록되어있다. 삶의 본질에 대한 고통스런 물음으로부터 출발하여 삶의 빛과 길에 도달하기까지 과정과 방법을 제시한 인생의 지침서이다.</p> <p>(동화출판공사·3천8백원)</p>
<p>출동! 오늘의 현장</p> <p>박종만 이경일, 고영재 조상기 강기석 엮음</p> <p>이 책은 평화방송 사태가 벌어진 후 한 일간지의 독자 투고로 시작된 글이다. 평화방송 노조원들은 초기 방송내용의 단편이나 모호한 한편의 책으로 발간해내는 것이 바로 평화방송 사태의 본질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는데 일치점을 보고 초기 평화방송의 프로그램이었던 '출동! 오늘의 현장'과 'PBC뉴스쇼' 앵커멘트 부분을 모아 편집했다.</p> <p>〈실천문화사·5천8백원〉</p>	<p>6공화국 언론조직</p> <p>김종찬 지음</p> <p>6공정권 6월의 실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있나. 6공해심요체인 '보수대연합'이란 정체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 그간 진행되어 왔던 '언론조직'을 철저히 해부함으로써 가능케 하고 있다. 또한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조직과 이태을르기 공세로 점철해온 한국 언론의 모든 보도를 세밀히 분석, 또한 반사조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언론조직의 기본 메커니즘을 밝히고 있다.</p> <p>(이침·7천원)</p>	<p>철의 노동자</p> <p>전국노동조합협의회 엮음</p> <p>이 책은 노래라는 무기를 노래의 형태로 노동자 대중에게 물려줌으로써 제자리에 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자는 의도에서 기획, 제작되었다. 새로운 노래의 보급과, 양적으로 불어난 노래를 실제 불리고 또 불려야 할 노래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가사하해, 골라야의 노래, 꽃다지, 노동의 새벽 1·2·3등 2백여곡을 수록하고 있다.</p> <p>(짜일·3천3백원)</p>	<p>자유인이 되기 위하여</p> <p>지두크리슈나무르티 지음</p> <p>이 시대 마지막 현자라고 불리우는 크리슈나무르티 (Jiddu Krishnamurti)가 지은 인생의 지침서이다. 인생에 있어 사소한 문제와 '삶의 참다운 자유'에 대한 깨달음을 단순 명료하게 정리했다. 제1권 '삶의 문제에 대하여' 제2권 '젊은이들을 위하여' 제3권 '젊은이들이 묻는 삶에 대한 물음과 응답'의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p> <p>(침향·3천5백원)</p>	<p>문학에세이</p> <p>우리문학 연구회 지음</p> <p>문학이란 무엇일까. 어떤 것이 훌륭한 문학작품이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 책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하는 문학, 우리의 내일을 뜨거운 희망으로 넘치게 하는 문학, 거칠고 참을 '구별하여 나약한 마음을 마구 아다치는 문학, 이러한 문학을 꿈꾸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문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깨우쳐 주고 있다.</p> <p>(이침 권·3천8백원)</p>